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3 5



VOL. 203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대한민국 명품 Private Banking 서비스 Hana Gold Club 론칭

7년연속 대한민국 최고 PB은행의 자부심으로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한국 Private Banker가 제공하는 한 차원 높은
자산관리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상담예약 :
Dita 021 522 0222 [내선 355]

Private Banker :
임창익 부장



* Private Banking 서비스란?
고객 니즈에 따라 전통적인 은행 상품 상담에서부터 투자, 세금,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컨설팅 및 total life care 를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은행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너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대한항공은 자카르타에서 서울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예약 및 문의: 62-21-521-2180



PT. BOSUNG INDONESIA

ISO 9001 : 2008 / ISO 14001 : 2004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골판지 생산에서 카본박스, 인쇄, 재단, 코팅까지 포장재 생산 전공정 설비를 통한 제품생산으로 최고 품질과 신속 납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전문 제조회사 보성 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품 안내

- 종이 골판지 생산
- 카본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15560 Banten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Hunting)
Fax. : (021) 5935 0022 (Shopping Bag) - (021) 5935 0066 (Inner Box) - (021) 5935 0033 (Carton Box)



PT. TAEWON INDONESIA

ISO 9001: 2000 / ISO 14001 : 2004

-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ws.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 (021) 8948 - 1234 Fax No : (021) 8984 - 1133/1134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Tel : 2992-2500, Fax : 2992-313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제 목 :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P.A.K. Lawfirm(김민수 변호사)과 함께 기초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문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 · 투자관련 법령 ·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김호일 전문관에
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핸드폰 : 0811-183-3164

○ 이메일 : hoilkim10@gmail.com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2013년 <제1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의 문학적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자라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활용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에 재외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응모 자격

- 성인부문
 - 거주국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장기 체류자)
- 청소년부문
 - 거주국 5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 초등학교 : 만7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재외동포 청소년
 - 중·고등학교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재외동포 청소년
 -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는 응모 불가

2. 공모 분야

구분	분야	출품편수	1편당 원고분량	공통사항	
성인	시	3~5편	제한없음	※ 미발표 한글 창작물 ※ 원고분량 80%미만 또는 150% 이상은 탈락	
	수필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4매 내외)		
	단편소설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13매 내외)		
청소년	중·고등학생	글짓기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3매 내외)
	초등학교	글짓기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2매 내외)

※ 청소년부문은 산문 및 운문 형식 제한 없음

※ 작품응모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www.korean.net >재단사업>공모사업' 혹은 팝업존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작품 주제

- 성인부문 : 자유주제
- 청소년부문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 내가 사는 지역(동네) 소개
 - 한국(모국) 방문 또는 한국어 학습 경험담
 - 자랑스러운 한국인, 기타 전반적인 한국 및 재외동포에 관한 주제
 - 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자유로운 주제 등

-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 'www.korean.net >재단사업>공모사업' 혹은 팝업존 이용
- 우편 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6층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재외동포문학상 담당자 앞 (137-863)

<신청 및 접수>

- 가. 작품 접수기간 : 2013.4.8(월) - 6.7(금), 한국시간 기준
- ※ 마감일 엄수 요망(우편 접수의 경우, 6월 7일자 도착분에 한함)

<문의>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나정은 대리

- 전 화 : 82-2-3415-0183
- 팩 스 : 82-2-3415-0198
- 이메일 : culture@okf.or.kr

제6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제6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원서접수 : 2013년 4월 22일(월) ~ 5월 8일(수)
2. 접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3. 응시료 및 준비물: 과목당 20만 Rp,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시험일 및 시험시간

시 험 일		시 간	비 고
5.25(토)	국어	08:30~10:00(90분)	시험시작 30분 전에 도착, 매 교시마다 시험 10분전 입실
5.25(토)	논술	10:40~12:40(120분)	
5.26(일)	수학	08:30~10:30(120분)	
5.26(일)	영어	11:10~12:10(60분)	

5. 응시 자격
 - *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 국내 · 외 대학 진학희망자
 - 한국 학교 및 외국계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재외국민)
6. 수상자 발표일
2013년 6월 11일(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7. 시상 내역

상명	인원	시상내역
대상	과목별 1명	상장 및 부상
최우수상	과목별 2명	"
우수상	과목별 3명	"
장려상	과목별 20명내외	"

8. 응시자 시상 및 특전
본 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로 수상실적은 대학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수상경력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자료 및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수학 특기적 재능 보유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 사항
 - 수험표는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신분증(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TEL 844-4958) 및 고등부교무실(TEL 844-4958 ext3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JIKS 홈페이지(<http://www.jik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주 관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후 원 : 재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국제교육진흥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KOICA,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지역협의회, 재인니한인회, 우리은행, 외환은행, CJ, KORINDO, PT.OZGUITAR, KMK, KOWIN 등



‘2013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 참가 신청

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13년 10월 29일(화)부터 10월 31일(목)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제12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합니다. 동 대회와 연계하여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재외동포 경제인을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 (Young Business Leader Forum)」을 개최합니다. 미래 한상(韓商)의 주역이 될 재외동포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 기 간 : 2013년 10월 28일(월) ~ 10월 31일(목)
- 장 소 :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 참가인원 : 약 100명(해외 80여명, 국내 20여명)

2. 프로그램(안)

- D-1일차(10.28.월)
 - 18:00~21:00 : 영비즈니스 리더의 밤(오리엔테이션, 친교시간)
 - 1일차(10.29.화)
 - 10:00~12:00 :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I
 - 14:00~17:00 :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II
 - 2일차(10.30.수)
 - 10:00~17:00 : 한상대회 비즈니스네트워킹 세미나
 - 3일차(10.31.목)
 - 10:00~12:00 : 내부회의
 - 14:00~17:00 : 비즈니스미팅
 - 18:00~21:00 : 폐회식 및 환송만찬
- ※ 상기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연령 : 만 45세 이하
- 해외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주류사회에 진출한 CEO 혹은 동급 전문 경제인
- 재외경제단체의 주요 보직자로 청년경제인들의 발굴과 육성을 담당하는 자
- 재외공관 및 재외동포경제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로 거주국 내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했거나 주목을 받고 있는 청년 비즈니스 리더

>> 신청 절차

- 참가신청서 작성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니 마감일(5/15)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및 관련서류 파일 첨부 요망)
 - 코리아넷() → 왼쪽 상단 팝업존 참조
 - 접수 확인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사업접수조회’에서 가능
- 개별 신청자(재외공관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완료

○ 재외공관을 경유하는 자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완료 → '신청서 출력' 클릭 → word파일 형태로 저장 또는 인쇄 → 거주국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재외공관 추천공문 발송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작성 (사진 첨부: 100KB 이상)
- 한글 또는 영문이력서 1부(이력서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
- 여권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회사 발행), 사업자증명서(certificate) 중 1부
- 회사 또는 비즈니스 소개 자료 PPT 10매 이내
- 기타 경력사항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널 및 신문기사 기고문, 수상경력, 연구 및 해당분야 논문 등

>> 신청 접수 및 참가자 선정

- 신청 마감 : 5.15.(수) 까지
- 선발결과 통보 : 7월 이내 (선정자는 공관 및 개별 안내 예정)
 - 선발자에 한해 추천공관 및 개별 통보
- 선발 절차
 - 신청서 접수 → 참가자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결과 통지 → 한상대회 등록 → 개별 입국

4. 참가자 지원 및 참가비

- 지원 사항
 - 숙박 : 10.28(월)~10.31(목) / 4박, 2인1실(조식포함)
 - 식사 : 공식 오·만찬
 - 프로그램 : 비즈니스 프로그램 및 세미나, 공식행사 등
 - ※ 항공료 자비 부담
- 참가비 안내
 - 신규 참가자 : 면제
 - 1회 이상 참가자 : USD 250 (호텔에 따라 등록비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담당 :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상센터 석정민 대리
- 전화 : +82-2-3415-0155
- 이메일 : yblf@okf.or.kr /
- 홈페이지 :

6. 유의사항

- 신규참가자는 반드시 추천자 및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기재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 마다 접수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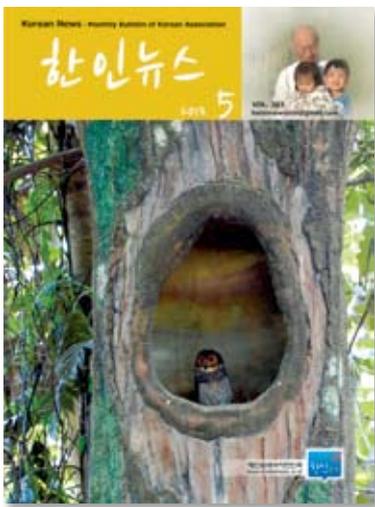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례.....10

이모저모 한인사회.....12

- 한인회 회장단, 자문위원간담회/자문위원명단
- 한마음열린음악회
- 청년위 윤상규위원 한인회 방문
- 한인회 회비 납부 명단 (법인,개인)
- 임원찬조금 명단
- 한인회 회부 납부 안내
- Korean Culture Day
- K-Festival
- 한국 MICE 로드쇼
- 안보세미나
- 코이카 선박안전성 /태권도후원회



표지설명 ▶▶▶

Bali Zoo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 doodle

이미 2천 년 전 로마제국이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을 만들어 그야말로 인프라의 구축이 시작되었고,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며 아주 먼 곳으로의 이동을 모색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미래로 가질 못했나봅니다.
막히는 길에서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상념으로 관조를 하다 무념으로 졸다를 반복하면 어느새 일터를 만납니다.
나를 반기는 또 다른 세상에 홀려 무작정으로 발을 성큼 내딛으며 휴유..!
이러서 일이 필요한 가 봅니다.
이러서 뭐라 수식할 수 없는 이곳의 5월도 건달 만 한 듯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코이카 드림 센터	해리티지탐방기<이수진>.....46
-제 12차 세계 한상 대회	행복에세이<서미숙>.....48
-WFK 인도네시아 도착/감사패 전달	좌충우돌인도네시아 표류기<이준규>.....50
-정보 접근 센터	Halal 푸드란?.....52
-직스 소식	Jalan-Jalan Jakarta/국립박물관<사공경>...54
-지스 소식	대학교 설립법<이승민>.....60
-제 3회 국제 아동 미술 대회	커피의 역사.....64
-헤리티지 소식 / 코원 소식	화 도 소.....66
-풍경과 사람	독 도.....68
-하나골드클럽 / 국민은행	영화 추천작.....70
인도네시아 약용 식물(파파야)<백진협>.....36	생활 정보
60세 정년 연장.....38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신성철>.....39	
아스맛 예술 세계<박조유>.....43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회회장단 자문위원 간담회

지난 4월25일 한인회회장단과 자문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가 있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인사회의 원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한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한인회장의 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20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결성된 자문위원회는 최연장자인 배상경자문위원을 의장으로 위촉하였으며,



화합과 소통의 한인사회와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 인도네시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인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열정을 갖고 봉사해 나가기로 서로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한인회 자문위원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1	자문위원회 의장	 배 상 경	TEBO AGUNG INTERNATIONAL
2	자문위원	 강 덕 재	LEMBUSWANA PERKASA
3	자문위원	 김 병 철	MISUNG INDONESIA
4	자문위원	 김 석 래	INACON LUHUR PERTIWI
5	자문위원	 김 영 만	KOREA INDONESIA PETROLEUM CO.,LTD
6	자문위원	 김 영 주	DEWA CITRA SEJATI
7	자문위원	 김 우 재	KOIN BUMI

8	자문위원		박 동 희	TRIKARYA ALAM
9	자문위원		박 헌 식	DONGAN KREASI INDONESIA
10	자문위원		석 응 치	DAYUP INDONESIA
11	자문위원		양 영 연	BOSUNG INDONESIA
12	자문위원		엄 석 준	NEW-WORLD MEDICAL
13	자문위원		오 세 윤	GARUDA MAS
14	자문위원		이 진 호	JIN YOUNG
15	자문위원		이 현 상	ROYAL KORINDAH
16	자문위원		이 승 민	YSM & PARTNERS
17	자문위원		장 주 현	INKO PRIMA UTAMA JAYA
18	자문위원		정 무 응	코린도장학재단
19	자문위원		최 정 남	GLOBAL FIBER INDO
20	자문위원		하 연 수	SEOLIN

한마음 열린 음악회

4월 21일 자카르타 봉까루노 스포츠 경기장에서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인이 함께 모인 가운데 한마음 열린 음악회 공연이 열렸다.

공연 시작 전부터 내린 비로 인해 온통 젖은 야외 공연장은 우비와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등 공연을 즐기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연을 보러 온 많은 한인동포들과 인도네시아 한류 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한국의 가수 이루는 ‘까만 안경’,

‘흰 눈’ 등의 히트곡을 부르며 생동감있는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또 에일리 배치기 마이티 마우스의 소리와 개그우먼 신보라 인도네시아 코미디언 솔래, 여배우 아티카 하시홀라가 게스트로 출연해 팬들의 열정적인 환호에 힘입어 멋진 무대를 연출했다.

이날 열린 한마음 열린 음악회는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 20여 한인단체총연합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청년위원회 윤상규위원과 간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방문

“4월 22일 청년위원회 윤상규위원이 인도네시아 한인회방문을 하였다. 이날 간담에서 신기엽 한인회장은 청년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KOICA 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취업 기회를 넓히며 현지에서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해당



국의 언어·관습에 관해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특히, 현지국가의 적응도가 높은 한인동포2세가 군복무대신 KOICA 봉사요원으로 대체 근무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해외동포가 750만을 육박하는 시대에 걸맞게 현재 재외동포재단을 해외동포부로 격상 신설해서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해외사업 전담기구를 단일화하여 통합 조정한다면 비용도 절감되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함으로써 한국과 해외동포사회와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윤상규위원은 해외취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효과가 미미한 단기교육이 아닌 중·장기교육시스템으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국민대통합위 · 청년위원회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내달부터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위원회는 청년의 창업·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발굴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청년위는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위원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전국 대학 총학생회 60여곳과 비정부기구(NGO)와 사회적기업 등 200여곳이 함께 청년위 사무기구 산하 ‘2030 정책자문단’으로 함께 출범한다.

‘2030 정책자문단’은 위원회 출범 후 단원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이 때 지원서에 학력이나 가족란을 없애는 대신 ‘청년 정책의 문제점’이나 ‘청년과 소통하는 방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받을 예정이라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앞서 청년위 설립추진단은 가수 보아를 홍보 담당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스펙보다 능력 중심사회’라는 새 정부의 인재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청년위는 이밖에도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K-무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현명관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해외 활동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베테랑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1세대 산업역군과 청년들의 취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한인회 법인회비 납부 명단(접수순)

번호	법인명	납입 연도	금액(Rp)
1	PT. KOIN SUKSES	2013	5,000,000
2	PT. DAILY INDONESIA	2013	3,000,000
3	PT. HANINDO EXPRESS UTAMA	2013	3,000,000
4	PT. DONG JUNG	2013	3,000,000
5	PT.DADA INDONESIA	2013	3,000,000
T O T A L			IDR 17,000,000

2013년 한인회 개인회비 납부 명단(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 연도	금액(Rp)
1	김영선	2013	300,000
2	이인호	2013	300,000
3	신기엽	2013	300,000
4	김영환	2013-2017	1,500,000
5	김재민	2013	300,000
6	신충일	2013	300,000
7	홍문기	2013	300,000
8	홍석영	2013	300,000
9	조규철	2013	300,000
10	정무웅	2013	300,000
11	전영돈	2013	300,000
12	김문호	2013	300,000
T O T A L			IDR 4,800,000



2013년 한인회 임원 찬조금 명단(접수순)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
1	한인회 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3	20,000
2	한인회 수석부회장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3	10,000
3	한인회 부회장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2013	5,000
4	한인회 부회장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3	5,000
5	한인회 부회장	김주철	PT. STAR CAMTEX	2013	5,000
6	한인회 부회장	김희년	PT. ETRADING SECURITIES	2013	5,000
7	한인회 부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3	5,000
8	한인회 부회장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2013	4,980
9	한인회 부회장	이지현	PT.ZIMMOAH MARINE TRANS	2013	5,000
10	한인회 부회장	이진수	PT. SUNG BO JAYA	2013	5,000
11	한인회 부회장	이호덕	PT. ROYAL SUMATRA	2013	5,000
12	한인회 부회장	조용우	외환은행	2013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최광수	PT. BIG STAR	2013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최상학	우리은행	2013	5,000
15	한인회 부회장	황의상	PT. INWHA INDONESIA	2013	5,000
TOTAL					\$94,980



[한인회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법인회비는 법인체당 매년 Rp.30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블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외환은행 KEBI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문의처 : 한인회사무국

전 화 : (021) 521 2515

Korean Culture Day 2013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이하 UI 대학교) 대강당에서 대사관, 한인회, 문화원 등 내외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orean Culture Day 2013’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행사는 UI대학교 한국학과 학생회가 주관하여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올해로 5회째 맞는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수교한지 4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설날’을 테마로 잡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렸다.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전통 사만춤과 한국의 사물놀이를 혼합한 공연의 시작으로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칼춤, 소고춤, 탈춤과 한사모 반동회원들의 부채춤과 비보이 공연이 이어졌다. 비보이 공연팀은 자신들이 직접 정성들여 준비한 의상 및 소품과 함께 뛰어난 공연실력을 선보여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Little Lamb의 원생들은 꼭두각시춤, ampar ampar pisnag등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한 Arumba BIPA, 한국학과 신입생들의 패러디, Mahawaditra UI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한국 청소년의 라이프 스타일, 교육, 사회생활, 패션 등의 주제로 토크쇼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S4의 스페셜 무대였다. S4의 화려한 무대와 폭발적인 사운드에 찬사를 보내며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 냈다.

야외에서는 한국전통품 박람회, 한국대학교 유학 박람회, PMI 수혈공급, 한국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 김치먹기대회, 설날 주제로 개최된 게시판 대회 등이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 장식품을 사기위해 몰려드는 학생들에게 한류열풍을 짐작케 했다.

행사 담당자 리나(한국어학과 3학년)는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국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 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행사 수입 중 10%는 고아원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3 K-Festival

한 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한-인니 수교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한류 관광 홍보·관측행사(2013 K-Festival)를 자카르타 몰 따만안그렉에서 실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K-pop 뿐만 아니라 웨딩, 미용, 공연 등 한류의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국 문화 및 방한 관광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K-pop 커버댄스대회와 메이크업 쇼, 성형 및 스킨케어 무료상담, 커플 포토 콘테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며, 한국의 주요 관광지 홍보 및 주요 여행사들의 방한 관광 상품 관측 행사도 함께 펼쳐졌다.

특히, 본 행사에는 장우혁, 리틀싸이, 진조크루 등 인기 한류스타들과 한국의 대표적인 너버벌 퍼포먼스팀 “비밥”이 참가해 K-POP 및 한국 공연 문화의 진가를 보여줌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 열풍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촬영을 지원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 오디션 프로그램 “갤럭시 슈퍼스타”를 통해 배출된 인도네시아 인기그룹 S4 및 SOS의 공연도 선보였다.

권중술지사장(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은 “K-festival 행사를 통하여 드라마와 K-pop으로 시작된 한류를 미용, 웨딩, 패션,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산시킴으로써 한국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국 MICE 관광객 유치 로드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4월 22일(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만다린 오리엔탈호텔에서 한국 MICE 관광객 유치 로드쇼(이하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현지 글로벌 기업 및 MICE 관련 업체, 관광업계 주요 인사와 언론 관계자 등 260여명을 초청하여 비즈니스 상담 및 한국 MICE 홍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2011년 6월, 한국관광공사는 연평균 6%에 가까운 고성장 중인 인도네시아 시장의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자카르타 지사를 개소하였다. 여타 동남아 국가보다 출산율이 높은 젊은 사회이자, 동남아 지역 한류열풍의 떠오르는 중심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3년간 방한관광객이 56% 이상 급증하는 등 차후 주요 방한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자카르타 MICE 로드쇼를 통해 관광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MICE,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our) 단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 MICE 관광상품 상담 및 홍보를 하는 MICE MART, 인도네시아 현지 주요 언론 및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KOREA MICE NIGHT으로 구성된다. 강원, 경기, 부산, 제주 등 지역별 차별화된 관광상품 홍보와 상담을 통해 실질적 비즈니스 수요를 이끌어내고, 한류를 테마로 한 특별공연 진행을 통해 MICE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자카르타 MICE 로드쇼 행사를 통해 MICE 관광, 인센티브관광 유치 증대는 물론, 올해로 수교 40주년을 맞는 양국의 우호 증진 및 관광업계 종사자간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MICE 산업이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부가가치창출), Conference(국제회의), Exhibition(전시) 사업을 의미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은 5.2(목) 한국국방연구원(원장 방효복)과 공동으로 ‘2013 한·인도네시아 안보·국방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013년 한·인니 우정의 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국의 국방연구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대표단과 인도네시아의 국방부 주요직위자, 국방 관련 교육기관과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 교수진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방효복 국방연구원장과 김영선 대사의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삼수딘(Sjafrie Sjamsoeddin) 인니 국방차관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다.

세션 1에서는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와 한·인니 안보·군사협력방안” 주제 아래 부형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과 인니국방안보연구소(IODAS) Rahakundini Bakrie 박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Jan Pieter Ate 국방부 국제협력국장과 Makmur Keliat 국립인도네시아대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세션 2에서는 “한·인니 공동 이익을 위한 방산협력 증진 방안” 주제로 정호수 방위사업청 국제방산협력과장과 Pos M. Hutabarat, 인니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의 주제 발표와 Andi Widjajanto 국립 인도네시아대 교수와 박준수 국방연구원 선임 연구원의 토의가 진행됐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과 한국국방연구원은 양국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의견 교환으로 수교 이래 지속되어온 양국 안보·국방 협력 분야의 외연을 확장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정부 간 협력 관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 분야에서는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함대와 군 교향악단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회의 및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이 기획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한·인니 간 국방 협력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KOICA, 선박안전성 제고 및 해양환경보호 역량강화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우 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
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4월 25일 인도네시
아 교통부 해상운송실에서 “선박안
전 제고 및 해양환경보호 역량강화사
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에 서명하였다.
금번 행사는 인니 측 Mr. Bobby
R. Mamahit 해상운송실장, Mr.
Yan Risuandi 해양안전국장, Mr.
Sugeng Wibowo 해양안전부국장
및 한국 측 김병관 KOICA 인도네시
아사무소 소장 등 양국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동 사업은 인니 정부에 대한 해상교통 분야 최초
의 무상협력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선박안전관리
법령 개선 및 교육을 통해 선박안전성을 제고하
고,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을 완화할 수 있는 인니
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행된다.

KOICA는 이를 위해 총 130만 불을 투입하여
해양환경 관련 제도정비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

를 파견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
하여 교관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
다. 또한, 선박검사의 고도화를 위한 각종 기자
재도 함께 지원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도서국가로서 한해 80,000척
이상의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는 등 무역 및 물류
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
번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인 해상운송
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해양협력 관
계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 후원기업, 관계관 초청 관저간담회

4월 28일 대사관저에서 김영선대사님
과 태권도사범, 조규철태권도 후원회
장을 비롯한 후원기업인들이 모인 가
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KOICA-현대, 인도네시아 드림센터 건립사업 협약식 체결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4월 9일 인도네시아 Puslatdikjur에서 ‘KOICA-현대, 드림센터 건립사업’ 협약식과 사업 출범행사를 가졌다. 금번 행사에는 인니 측 Mr. Mustafa Kemal 북부자카르타 직업훈련센터장, Mr. Anwar 지역정부 관계자 그리고 우리 측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소장 및 박진영 현대자동차 아태지역본부장, 신재민 현대자동차 사회문화팀 과장, 이상주 플랜코리아 대표, Mr. Peter La Raus 플랜인도네시아 대표 등 양국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사업은 KOICA의 민관협력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CSR 프로그램 일환으로, KOICA와 현대자동차는 북부 자카르타 직업훈련 센터 내의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건립을 지원하게 되며, 각종 자동차 정비 관련 기자재도 함께 지원된다. 이 센터에서는 15~24세의 자카르타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연계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청소년 인구비율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국가이지만, 학교 교육과 취업 또는 창업과 같은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기회의 부족으로 그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실업률을 낮추고, 인도네시아 산업시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진 자동차 직업훈련 시스템도 공유하게 되어 자동차 정비교육 수준의 향상도 기대된다.

특히 2015년부터 아세안국가 간 노동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바, 우리의 기술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인도네시아 내의 일자리 확보와 더불어 타 국가로의 취업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상대회 운영위 및 리딩CEO 포럼, 12차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2차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제23차 리딩CEO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운영위원회와 리딩CEO 포럼에는 40여명이 참석하여, 운영위에서는 제21차 운영위원회 및 제11차 세계한상대회 결과보고가 진행된다. 또,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계획을 보고하고, 2014년 제13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 선정 등을 의결한다.

리딩CEO 포럼에서는 ‘재외동포 보유자금 활용을 통한 모국경제 기여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에 이어 ‘제12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리딩CEO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날 공동대회장으로 김우재회장, 송창근회장이 선임되었으며, 제13차 차기대회는 부산으로 결정되었다.

롯데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4월 16일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인도네시아대학교(UI) 등 4개 대학 학생 2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UI 재학생 8명, 반둥공대(ITB) 5명, 보고르농대(IPB) 5명, 내셔널대

(UNAS) 4명 등 4개 대학 모두 22명의 학생에게 각각 600달러씩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롯데장학재단은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부터 지원대상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개 대학 22명씩으로 확대했다.

KOICA, 신규 WFK(월드 프렌즈 코리아) 봉사단원 인도네시아 도착



▲ 2013년도 1차 신규 봉사단원 자카르타 입성 (2. 14)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이 파견한 2013년도 1차 봉사단원 6명이 4월 22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였다.

이번에 파견된 봉사단원은 유아교육, 음악교육, 미용, 컴퓨터 분야에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자카르타 시내에 위치한 훈련소에서 현지어 학습 등 8주간의 현지적응 훈련을 마치고, 보고르, 깔리만탄, 동부자바, 남부술라웨시, 중부 수마트라 등으로 파견된다.

자카르타 도착 다음날 한국 대사관을 방문한 자

리에서 김영선 대사는 우리나라 민간외교관인 KOICA 봉사단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스마트 원조(Smart Aid) 즉,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나눔과 섬김이 바탕이 된 마음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금번 신규파견 단원을 포함하여 총 64명의 봉사단원이 자바섬 전역을 비롯, 깔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등 전국에서 다양한 분야로 활동 중이다.



▲ 한인회(회장 신기엽)는 4월26일, 그동안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찬의(주.삼탄) 전대표이사에게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한-인도네시아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정보화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은 올해 인도네시아에 신규 정보접근센터(Information Access Center, IAC)를 구축키로 하고, 4.15(월) 인도네시아 다르마자야 정보경영 대학(Informatics and Business Institute Darmajaya, IBID) 측과 센터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통신정보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통신정보부(MCIT) 마리암 바라타(Mariam Barata) 국장 및 가똏 데와쁘로또(Gatot Dewa Proto) 대변인과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박영식 공사가 입회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다르마자야 대학(IBID) 안디 데스피안디(Andi Desfiandi) 총장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홍명하 글로벌사업부장이 양 기관을 대표하여 MOU에 서명하였다.

정보접근센터(IAC)는 한국의 최신 기술로 구축되는 IT 센터로,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라운지」, 정부 공무원·지역 주민·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 국내외 행사에 사용되는 「세미나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한국이 국제사회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 말 현재까지 전세계 총 33개국에 34개 정보접근센터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홍명하 글로벌사업부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4월8일부터 5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통신정보부(MCIT) 아쉬윈 사송코(Ashwin Sasongko) 총 국장 및 관계자들과 한-인도네시아 정보접근센터구축을 위한 일정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구축대상 후보기관으로 추천 받은 5곳을 직접 실사하였다. 접근성, 구축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표단은 수마트라섬 남부 반다르 람뽕(Bandar Lampung)에 위치한 다르마자야 정보경영 대학(IBID)에 센터를 구축키로 인니측과 최종 합의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금번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통해, 해당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IT 강국 대한민국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금년 하반기 내에 구축을 마무리하고, 양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과 함께 정보화협력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 JIKS 학부모 Supporters workshop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선중복)는 매년 학부모 서포터즈가 결성되어 2011년 뽕짜찌보다스, 2012년 보고르식물원, 그리고 올해는 4월 11일에 센톨함발랑 지역에 있는 숲센터 생태학습장으로 학부모회와 샤프론봉사단 등 60여 명이 함께 다녀왔다.

아침 일찍 3대의 버스를 임대하여 센톨함발랑 숲센터에 도착한 JIKS 서포터즈 학부모들은 한국 산림청에서 파견된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시설 안내와 소개를 받았다. 전체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고 작은 10동의 목조 건물들과 숲속 잔디공간, 하늘로 쭉쭉 뻗은 소나무 등은 자연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 편안함을 안겨 주었다.

선중복 교장은 특강에서 바람직한 서포터즈의 역할은 자녀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통하여 학력 신장과 꿈을 키우고 이를 수 있도록 교사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숲해설가 출신인 채상진 상담교사로부터 숲속 공작활동(신문 | 자 모자, 작명루, 나무젓가락의 변신 등)과 식물의 생존 전략,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많은 이로움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피톤치드(phytoncide)라는 식물성 살균 물질인데 이것은 다른 식물들에게는 마음대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해로운 물질이지

만, 사람에게서는 머리를 맑게 해주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다고 하였다.

숲속에서 먹는 특별한 점心和 더불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소나무에서 채취되고 있는 송진의 진한 향기와 대나무 출렁다리를 건너고, 논두렁 사이를 걷는 JIKS 서포터즈 학부모들은 마치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되돌아가는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함발랑숲센터는 한국의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산림청이 MOU를 체결하여 센톨 지역에 산림 휴양지 형태로 조성해 놓은 생태자연학습장이다.



▲ 식물들의 생존 전략과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을 듣는 '웰빙 숲체험' 모습

Jakarta International Korean School
교무실 ☎ 844 - 4958
<자료 문의> 글로벌리더십센터 채상진

제3기 학부모샤프론봉사단 발대식 개최

JIKS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선종복)는 2011년 3월 30일 재외한국국제학교로서는 처음으로 학부모샤프론봉사단 창단식에 이어 지난 4월 19일에 제3기 발대식을 JIKS 나래홀에서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학부모샤프론봉사단(단장 김연진)의 임원과 회원 64명을 비롯하여 초중고 학부모 및 교직원, 밥퍼해피센터, 한인니문화연구원, 굿네이버스인도네시아지부, 헤리티지소사이어티, 무지개공부방 등 관계자 다수가 참석하여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모색했다. 발대식 내용은 샤프론 신입 임원단 임명장 수여와 전체 회원 선서, 격려사 및 축사, 작년 임원단 감사장 수여 및 활동 보고, 2013년도 활동 계획 보고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선종복 교장은 “JIKS 학생들과 함께 2년 동안 현장 체험 형태로 다양하게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주신 샤프론봉사단의 역할이 컸다” 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입 회원 2~3급 연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밥퍼해피센터 봉사, 수까부미 지역사회 봉사, 통역 봉사, Yayasan ‘Sinar Pelangi’ 고아원 일일봉사, 행복마켓 베품시장, 무지개공부방 등 봉사활동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 줄 계획이다. JIKS는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과 삶의 보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차세대 자원 봉사자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샤프론(Chaperon)은 미국의 초중고에서 선생님을 도와 학생들의 교외활동을 인솔, 지도하는 학부모 봉사자를 지칭하는 말이며,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은 비영리자원봉사단체(NPO)인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산하에 있는 학교봉사단 조직이다.



J I S



(학생기자 권기남)



IASAS 배드민턴대회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자카르타국제학교 (JIS)는 동남아시아 6개국 국제학교 연합 (IASAS)의 회원으로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방콕, 마닐라, 타이완,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의 대표 국제학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학생, 여학생이 나뉘어 경기를 했다. 각 학교에서는 각 성별당 단식 세팀, 복식 두팀, 후발 선수로 한명이 참여하여 남녀 대표 8명이 기량을 겨뤘다.

모든 학교가 다른 학교와 한 경기씩 한 후, 정해진 1위에서 6위 중 3위와 6위, 4위와 5위가 플레이오프를 하고 플레이오프 중 최고점수가 2위와, 최하점수가 1위와 경기를 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JIS 남자팀은 첫 경기 때 3위를 차지하고 6위와의 경기 후 2위와 경기를 치루었다. 그 결과 JIS 남자팀은 당당히 은메달을 획득했다. 작년에는 3위였으나 올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남자 경기

의 우승자는 강력 우승후보였던 타이페이 국제학교로, 올해로 13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반면 JIS 여자 팀도 최선을 다했으나 6위에 머물렀다.

이번 배드민턴 대회에는 많은 한국 학생이 참여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남학생 8명중 4명이 한국인이었고, 여학생 또한 8명 중 3명이 한국인이었다.

JIS 박재성 선수와 최태훈 선수는 한 팀으로 복식에 참여했고, 김진영 선수는 인도 선수와 복식을, 김흥래 선수는 단식으로 참여했다. 김진영 선수는 모든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전경기우승자와 MVP를 수상했다. 김흥래 선수는 4년 연속 IASAS참여로 특별상을 받았고 JIS 배드민턴 남자팀의 대표로 출전했다.

여자 팀에서는 박지윤과 정다운 선수는 각자 다른 팀에서 복식에 참여했고 김소정 선수는 단식에 참여했다.



남자 복식 A팀의 김진영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고, 다른 학교의 선수와 친해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하면서 앞으로 후배들의 활약을 기대했다.

여자 복식 A팀 박지윤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동기 부여를 받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더 열심히 훈련하여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을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JIS를 널리 알릴 기회였을 뿐 아니라, 선수들은 실력을 쌓고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3회 국제아동미술대회

4월 13일, 싱가포르국제학교에서 '제3회 국제아동미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한-인니 양국 학생들이 자유로운 표현과 경쟁을 통해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대감을 쌓기 위한 행사로 마련되었다.

한국문화원이 주최하고 재인니한인미술협회(회장 이은수)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아(4-6세), 초등학교(7-12세)등 120여명이 참가하여 '내가 알고 싶은 한국', '내가 가고 싶은 한국', '한국의 문화'란 주제로 각자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펼쳐보였다.

일찍부터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자리를 잡은 아이들은 꼼꼼이 생각하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쓱쓱 순식간에 스케치를 해 나갔다. 전통예복을 입은 신랑각시, 부채춤, 기와집, 한국음식 등 저마다의 생각을 색색이 꺼내 놓았다.

머리를 뚱긋 묶고 친구들과 마주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딸아이의 진지한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다. 유아부에서 간간히 들리는 울음소리조차 흥겹게 들리면서 주말을 즐기는 가족나들이 풍경을 자아냈다.

문화원 당종례 부원장은 "국제학교를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 작년에 비해 인도네시아 어린이들 참가가 좀 저조하지만 다음에는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외국 어린이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20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5월4일에 시상식과 함께 11일까지 문화원에 전시될 예정이다.





헤리티지 코리안 섹션 2013 행사 안내

인도네시아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헤리티지 내 코리안 섹션(공동대표: 이수진, 유남실)가 올해 행사일정을 발표했다.

아래 행사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려면 먼저 헤리티지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행사 계획>

- ◆ 로얄 패밀리를 통해 본 인니 현대사 단면/ 5월 4일(토) 9:30 ~ 12:00 헤리티지 도서관
신청접수: 고희숙 komy623@gmail.com
- ◆ 센톨 근방 탐방 예정/ 5월 셋째주 평일(월, 수 중예)/ 장소·날짜 미정
- ◆ 헤리티지 외국인 그룹 대상으로 한국 소개하는 프로그램/ 5월 29일(수) 한국의 날
발표자: 남경옥 장소- 미정
- ◆ 12회 제3차 박물관 자원 봉사자 트레이닝 워크샵/ 9월부터 화/토 실시
(지원자 자격- 3년 이상 체류예정/ 영어 해석

가능자 우선 접수)

접수 : 고희숙 komy623@gmail.com

<헤리티지 회원 가입 안내>

도서관 스나얀 플라자 내 소고옌 센트랄 스나얀 1번 건물 17층 · 가입한 회비는 전액 문화지원 사업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 ◆ 전화: 021)572-5870 Nida (영어/인니어)
- ◆ 연회비(2인)-30만 루피아 가족회비(4인)-60만 루피아
- ◆ 웹사이트 www.heritagejkt.org

KOWIN 정기총회 소식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코윈)에서는 지난 3월 정기 총회를 열었다. 제 6기 차기 코윈회장은 다양하고 풍부한 커리어를 바탕으로 차기 코윈 인도네시아를 이끌어 갈 책임자로 평가되는 박현순 (리틀램 유치원 원장)이 선출되었다.

코윈에서 알립니다!

코윈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갖고 있는 교민 여러분들의 재능을 기부 받고자 합니다.각자 갖고 있는 나만의 재능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기여될 수 있다면 어떤 형식적인 기부보다 보람이 있을 겁니다. 재능기부서의 내용은 (이름, 연락처, 이메일, 재능기부항목, 선호하는 요일 및 시간)을 내용으로 soonjaewic@hotmail.com 으로 보내 주십시오.

코윈 인도네시아 2013 프로젝트

두 번째 충전 "인생은 아름다워"



자카르타에서 이루어지는 수 많은 강의들... 웬지 나에게만 먼 이야기일 것만 같아서 망설이셨지요? 누가 대신 해 주면 속 시원한 이야기, 듣고 보고 웃다 보면 공감과 위로가 되는 자리가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해지수가 저절로 상승! 부부가 함께 참여하시면 더욱 유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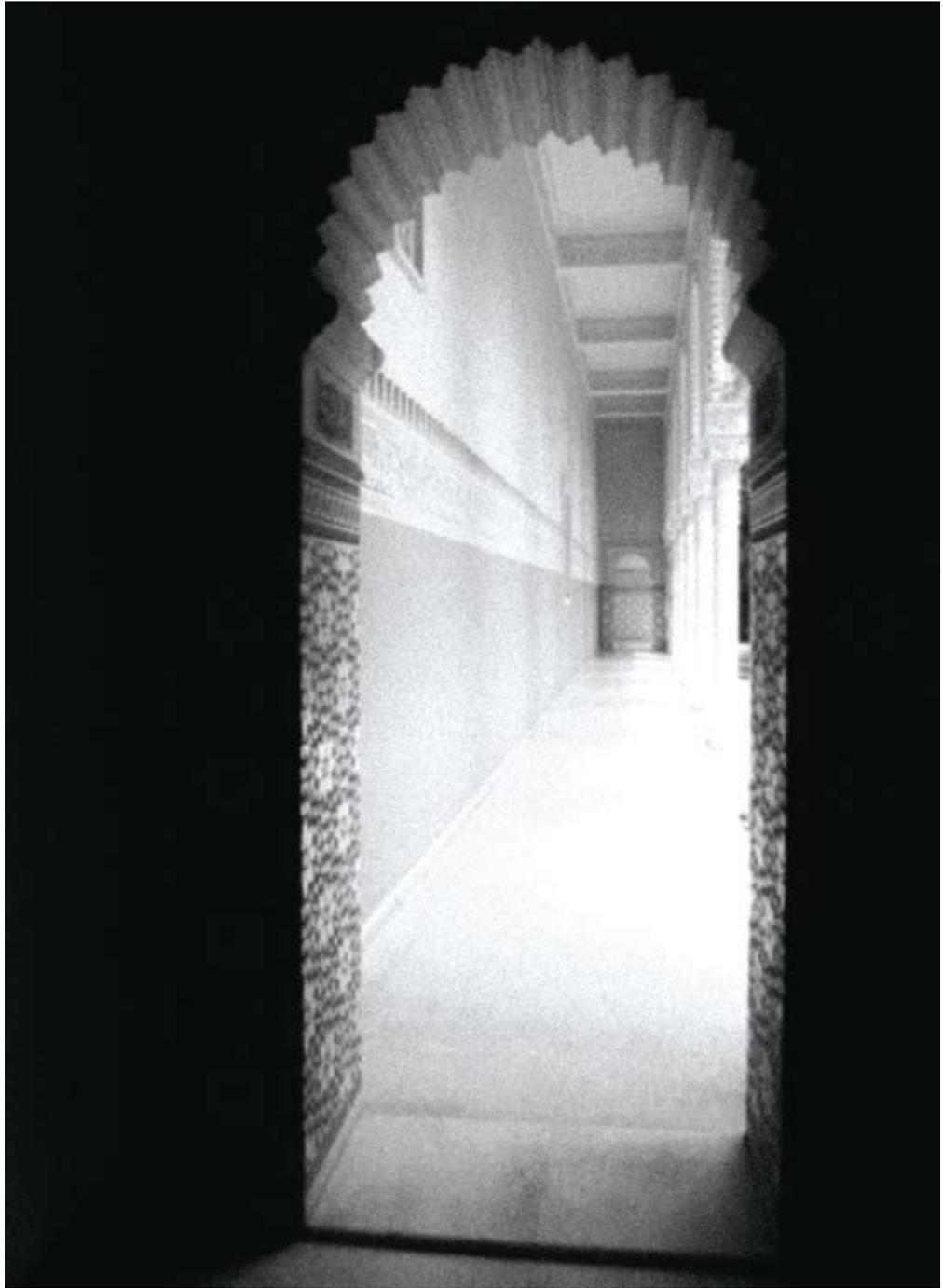
충전 1부 가족 내 성 역할

강사: 박 현순 원장 (리틀램 유치원)

충전 2부 신나는 노래교실

강사: 유 지명 단장 (라뮤즈 합창단)

일시: 2013년 5월 25일 (토) 오후 2시30분~ 5시 장소: 한국문화원 Equity Tower 17층
(참가문의: 인도네시아정부 담당관 이순재 0815-1170-8882, 김명화 0818-737-874)



여정...

Duta Fine Art Gallery, Kemang, Jakarta

길을 가다가 문을 만났다 문득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인가 아니면 이길의 종착점인가?
시작 이든 마지막 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지금 보다는 좀더 다른 생각으로 길을 걸어 보려한다.

만족하던 만족스럽지 않던 이미 과거로 지난 것들 보다는
이 문앞의 시간과 새로운 여행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골드클럽' PB 서비스 개시

- 하나은행 본점 52층에 '하나골드클럽' 을 오픈하고 본격 PB 서비스 개시
- 인도네시아 한국계 은행 최초로 한국 Private Banker 배치



한 지 5년만에 한국계 은행 중 총대출, 총예금 1위를 달성하였고, 이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한국 수준의 명품 PB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 본사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기엽 한인회장, 송창근 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40 여명의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은행장 최창식 / www.hanabank.co.id) 은 지난 5월2일 하나골드클럽' 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개시했다. 하나골드클럽은 7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Private Bank 상에 빛나는 독보적인 PB 브랜드로 한국 최초이자 최고의 PB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최창식 은행장은 오픈 행사에서 “인니 후발주자로 출발

VIP 고객이 참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에 새롭게 부임한 여성 Private Banker 임창혁 부장은 내빈들 앞에서 “단순히 예금거래를 도와드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고객 Life Cycle 에 맞는 total life care 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고객 여러분께서 금융 관련 고민이 있다면 늘 곁에서 솔루션을 찾아드리는 조력자가 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KB국민은행-인도네시아 Bank Mandiri 업무 협약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이 10일 오전, 명동 본점에서 인도네시아 Mandiri 은행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두 은행은 양국에 진출한 자국기업에 대한 마케팅 및 SOC, PF참여 등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KB국민은행의 외화자금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양국간 루피아화 송금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외환서비스 제공과 Mandiri 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도네시아에서의 고객편의 제고를 위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해외 주요 현지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KB국민은행 고객의 금융업무 편의를 제고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인도 ICICI 은행, 아랍에미리트 Abu Dhabi 상업은행, 요르단 아랍은행과의 업무제휴에 이어 ASEAN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로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제4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내가 너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는...’

폭우에 떨어져 튕구는 나뭇잎, 젖은 땅에 길 내는 잎맥처럼

문학의 길을 여는 그대에게 가고 싶다.

나조차 알 수 없는 내 안의 가득한 열정으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리를

문자로 해독하는 그대에게 가고 싶다

너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발견하는 숲의 미학을 아는,

너에게서 비롯된 나의 그대에게 가고싶다.

제3회인터넷공모전 시상식 인사말 중에서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 2013년 5월~8월15일 (문화탐방기 / 생활수기)
3. 원고분량 : 산문 부문 - A4용지 2쪽에서~ 5쪽 / 시 부문 2편 이상
4. 대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 love.indonesia@hotmail.com / manggis7@hotmail.com
6. 시상식 및 문화행사 2013년 9월(일시추후발표)
7. 시상내역 :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

상 의 종 류	인 원	시 상	시 상 내 역
대상(1명)	1	재인니한국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각 1명)	2	재인니한인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각 1명)	2	한·인니문화연구원이사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각 1명)	2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각 1명)	2	재인니상공회소회장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각 1명)	2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상장과 부상
장려상(각 2명)	4	한·인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 시상내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후원: 주인니한국대사관, 재인니한인회, 재인니상공회의소,
일요신문, 한인뉴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신문, 자카르타경제일보

특별후원: 재외동포재단. 재인니대한체육회회장 양영연, 한인회부회장 김주철

붙임 ; (글자모양=바탕체, 글자크기=11, 행간=160%)

- ① 응모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 ② 원고는 위의 지정된 e-mail로 응모할 것
- ③ 응모작품은 제출일 이전 미발표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 ④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판명된 경우 당선이 취소됨
- 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021) 78839597 / 0816-190-9976

서미숙 0812-8178-050 gaeunsuh@hanmail.net

채인숙 0815-8479-7879 jemmachae@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파파야(Papaya)

너무 흔하지만 귀한 식물



일반명: Papaya, Papaw, Pawpaw (Eng.); 빠빠야, 뽀빠야 (Indonesia)
과 명: 파파야 과 (Family: Caricaceae)
학 명: *Carica papaya* L.
기원지: 중남미 멕시코 남부 지역
서식지: 전 세계 열대국가에서 재배
이 용: 과일, 야채, 비누, 고기 연화제, 다양한 의약적 사용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멀티 플레이어 (Multi-player) 과일

파파야는 인도네시아 대도시 외곽의 도로주변, 농가, 마을 인근 등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이고 과일이지만 그 쓰임새는 정말 다양하고 중요해서 인도네시아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파파야는 빠르게 자라는 교목성 허브로써 크기는 5-10m이고 줄기에 상처모양의 잎자국이 있습니다. 잎은 돌려나며 줄기 끝에 뭉쳐납니다. 직경 50-70cm 까지 자라고 손바닥 모양처럼 깊게 갈라집니다. 꽃은 흰색이며 두툼하고 왁스 층이 있습니다. 열매는 원통형으로 생겼고 크기와 무게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15-45cm 정도까지 자라고 무게는 10kg까지 나갑니다. 열매가 익으면 표면은 부드러워지고 색깔은 황색이나 오렌지색을 띠게 됩니다.

중요한 지역 식단 (Local diet)

다 익은 파파야 열매는 잼을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주로 생과일로 소비됩니다. 거대한 크기의 파파야는 두툼한 육질의 달고 부드러운 과육을 가지고 있어 한 끼 허기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입니다. 가정이나 호텔에서 디저트 용 과일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비린 맛을 없애고 더 선명한 맛을 내기위해 라임주스나 소금, 후추, 고춧가루 등을 가미해서 먹습니다. 비타민 A와 C의 비율이 높으며 칼슘 함량은 오렌지보다 높습니다.

덜 익은 파파야는 주로 요리 첨가 재료로 사용됩니다. 태국에서는 Som tam 샐러드나 Kaeng som 카레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볶음요리 '오생오생 빠빠야 (Oseng-Oseng Pepaya: 덜 익은 파파야를 껍질을 벗겨 채로 썬 다음 고추와 마늘 양파등을 넣고 볶아 낸 요리)' 나 순다지역의 유명한 '라랍 샐러드 (Lalab salad: 오이, 토마토, 둥근가지, 양배추, 콩

각지, 시금치, 레몬, 바질, 파파야 잎 등을 삼발 트라시와 함께 먹는 샐러드'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합니다. 인도에선 열매를 삶아 으깨서 이유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약적 사용

열매와 잎에서 분비되는 라텍스에 많이 함유된 '파파인(Papain)' 효소는 소화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고 단백질 분해력이 높아 육류연화제로 쓰입니다. 파파인 효소를 가루로 만들어 정제한 것을 비누(세안 재료)로 사용합니다. 강한 세정력이 있으며 여드름 등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찜는 껌을 만들 때 사용되거나 섬유 구겨짐 방지제로 활용됩니다.

민간에서 많은 전통의약적 사용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파야의 잎과 꽃을 찢고짜서 걸러낸 즙은 말라리아에 특효가 있으며, 복통이나 두통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파파야주스(생과일주스나 덜 익은 파파야와 식초 소금을 섞은 주스)를 바르면 피부 트러블(잡티나 흠, 뽀루지) 제거나 여러 피부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파야 잎은 이노제나 구충제로써 효과가 있다하

여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몇몇 나라들에서는 파파야 잎을 담뱃잎 대용으로 쓰거나 천식의 치료제로 쓰기도 합니다. 중국전통 의학에서는 산모의 모유 분비 촉진을 위해 절반 정도 익은 파파야와 돼지 족발을 함께 끓여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파파야는 생과일이나 야채로써의 소비 외에도 민간에서 대용약재로 널리 쓰이는 중요한 식물이지만 특히 전통적인 민간요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크기에 비해 값이 매우 저렴한 파파야는 서민적인 과일입니다. 더군다나 민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다시금 눈여겨 볼 만합니다. 요즘 대형 슈퍼마켓에서 흔히 보이는 파파야는 주로 태국이나 미국 등에서 수입된 교배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의 소규모 재배와 교통의 불편 등 유통의 어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지역 전통시장을 찾거나 농가에서 재배되는 인도네시아 파파야를 구해 드시고 맛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60세 정년 연장 공기업·대기업 인력 쏠림 심화 예고 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6년부터 도입된다. 첫 해에는 300명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 등이 대상이며 이듬해부터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1년이라는 차이를 두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계와 현장에서는 근속연수는 짧고 인건비 비중은 높은 중소기업에서 제도 정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청년들의 공기업·대기업 쏠림 현상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300인 미만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5.2년으로 300인 이상 기업(9.5년)보다 훨씬 짧았다. 중소기업 근속연수가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자료를 공개한 9개 공기업의 근속연수는 무려 15년에 달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30세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기업은 45세, 대기업은 40세 가까이 근무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35세에 퇴직을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제도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산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은 대기업(6%)에 비해 중소기업(11.6%)이 2배 정도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 신규 채용을 줄일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 없이 일괄적으로 60세 정년을 의무화

할 경우 중소기업보다는 공기업이나 노조의 입김이 센 대기업 중심으로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대기업 쪽으로 쏠리면서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지불 능력이 부실하고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정년 연장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구직자 입장에서 ‘대기업 메리트’가 하나 추가되면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업주와 노조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처벌 조항은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완성차업체나 조선업체 등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만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라는 혜택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노동능력과 보상 간의 합리적인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일부 대기업 혜택의 독식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인력 미스매치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내로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갯벌을 지키는 꽃밭 2013 순천만 세계정원박람회

순천에서 봄빛 가득한 지구촌 정원과 명품 습지를 거닐자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dailyindonesia.co.kr) 발행인

따사로운 햇살이 쌀쌀한 바람을 비집고 얼굴에 내려 앉는 계절 봄과 잘 어울리는 ‘정원’이라는 단어에 꽃혀서 ‘2013 순천만세계정원박람회’를 찾았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4월 20일 개막해 오는 10월 20일까지 6개월 간 전라남도 순천에서 대장정을 이어간다. 그야말로 새봄과 함께 시작한 지구촌의 축제다.

초봄의 쌀쌀함이 미처 가지지 않은 지난 4월 22일 설레는 마음으로 용산역에서 KTX열차를 타고 3시간10분 만에 순천역에 도착했다. 달리는 열차 밖으로 펼쳐지는 시골풍경이 정겨웠고, 열차에서 내렸을 때 코 끝에 닿는 맑은 공기가 상쾌했다.

순천역에 내려서 어디로 가야 하나하고 두리번거리는데, 외지인처럼 보였는지 미모의 아가씨가 “역 앞에서 시내버스 200번을 타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 초행길 긴장이 풀리면서, 낮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이런 편안함을 줄 수도 있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떠오르게 한 순천아가씨의 말대로, 버스를 타니 운전 기사와 승객들의 떠드는 소리가 예전 시골버스를 타던 느낌을 끌어내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버스를 타고 15분쯤 달려 순천 시내를 지나니 거대한 주차장이 보이고, 정원박람회장 서문이라는 안내가 나온다. 갑자기 승객들 사이에서 “서문에서 내리냐” “동문에서 내리냐”로 설전이 시작됐고, 기사아저씨가 어디서 내려도 박람회는 다 볼 수 있다고 중재를 한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차했다.

우리는 서문을 지나서 안내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동문에서 내렸다. 입구에 노랑, 빨강, 진홍 등 선명한 색을 뽐내는 튜립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지나던 사람들이 서로 조화나 생화나 물으면서 만져보고 감탄하는 모습이 내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세계대자연습지 순천만이 순천시를 바꾼다

약속시간이 되자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김범철 주무관이 반갑게 다가와서 출입증과 박람회 안내지도를 주며, 오늘의 동선을 소개했다.

김 주무관은 예전에는 가치가 별로 없어 보였던 갯벌이 갈대밭, 짚뽕어, 게, 꼬막 같은 다양한 해양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산업이 덜 발달한 순천시를 생태관광도시로 변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수년 새 순천만 습지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 연간 300만 명이 찾고 있다며, 이번 정원 박람회도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순천만 습지가 어떤 곳이기에 세계정원 박람회까지 유치하게 되었을까?

순천만은 220여종의 철새와 120여종의 염생식물이 살고 흑두리미와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5종의 국제보호조와 수만 마리의 희귀종 새들이 월동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지난 2006년 ‘람사르 협약’에 등록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은 갈대와 넓은 갯벌이 있고 주변에는 농경지와 산이 있으며 또 사람이 살고 있어 온전한 연안습지 조건을 모두 갖춘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자원이다.

문화재청도 순천만의 빼어난 해안 생태경관과 가치를 인정해 2008년에 명승 41호로 지정했고, 매년 300만명 이상의 생태관광객이 찾아와 국민휴식처로 공인된 지역이기도 하다.

김 주무관은 지구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된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에서 ‘지구의 정원(庭園),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23개국 83개 팀이 조성한 정원을 선보인다고 하며, 국내외 관광객 4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막하자마자 관람객들이 몰려서 하루 두 팀씩 안내하다 보니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지만 이번 박람회의 홍보가 잘 된 것 같아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그가 말했다.

개장 11일을 맞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수가 40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인 28일 하루 관람객이 54,605명으로 개장 이후 최대 인파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1일 관람객 수 54,266명을 넘어선 수치다.

봄날 지구촌 정원을 거닐다

김 주무관을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한 실내정원에 이어 각국의 전통정원과 기업과 지자체

들이 참여한 야외정원을 돌았다. 바위들이 늘어진 바위정원, 정갈한 느낌의 일본정원, 열대의 느낌을 가진 태국정원, 곧은 나무기둥이 인상적인 메타세콰이어길, 풍차와 튜립으로 꾸며진 네덜란드정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하나은행 정원, 서울시 정원, 한방체험관, 순천호수정원, 프랑스정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중국정원 등을 돌아봤다.

제한된 시간 안에 다보고 싶은 욕심에 휩휩 지나며 보았는데 아쉬움이 남았다. 다 보려 하지 말고 천천히 거닐면서 볼 수 있는 만큼 대신 하나라도 제대로 보면서 정원을 디자인하고 꽃과 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 주무관은 “박람회장은 볼거리로 넘쳐나지만 이 가운데서도 ‘호수정원’과 ‘네덜란드정원’ ‘한국정원’ 등이 관람명소로 꼽히고, 참여 정원도 볼거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수정원’은 영국의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쟁스가 순천시의 풍경과 순천만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했는데, 전체 4만여㎡의 부지에 순천 도심에 있는 봉화산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축소해 만들고, ‘난봉 언덕’과 ‘봉화 언덕’ ‘해룡 언덕’ ‘앵무언덕’ 등은 순천을 둘러싼 산에서 명칭을 따왔다고 했다.

세계정원은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 일본, 독일, 태국, 파키스탄,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세계 11개국의 전통적인 정원문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고, 꽃의 정원이나 물의 정원에서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한방약초원과 놀이정원 등에서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실내 및 야외공연장에서는 현지 예인들의 전통공연을 포함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우리가 돌아보는 동안에도 공연을 안내하는 방송이 계속 나왔다.

이어서 우리는 컨테이너를 이어 만들고 전세계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타일로 벽을 장식한 꿈의 다리를 건너서 서쪽 지구로 이동했다.

국제습지센터 앞에 있는 순천만 WWT 습지에는 홍학과 철새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다. 김 주무관은 WWT 습지를 조성한 후 철새들이 모여들고 있다며 제대로 설계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원박람회 나무 활착의 비밀은 매립형 지주대 이어 나무도강원관을 지나면서 박람회장의 나무들은 심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꽃꽂이처럼 허리를



펴고 서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주무관은 “나무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버티도록 하는 지주대를 보통 지상에 설치하지만, 이곳에는 땅속에 설치했다며 외관상 좋을 뿐만 아니라 지지력도 훨씬 좋으며 ‘매립형지주목 설치공법’은 순천시가 개발한 일종의 ‘신공법’이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국의 오래된 정원 풍경을 재현한 한국전통정원은 창덕궁 후원을 재현한 ‘궁궐정원’과 선비의 정원을 보여주는 ‘군자의 정원’ 그리고 서민들의 정원을 볼 수 있는 ‘소망의 정원’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정원 뒤뜰로 언덕을 오르면 박람회장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지가 나오고 이어 100여 종의 철쭉이 심어진 철쭉정원으로 내려오게 된다. 철쭉정원은 한창 꽃이 만개해 붉은 카페트 위를 걷는 느낌이 들었다.

갈대밭과 짱뚱어가 뛰는 갯벌

이번 박람회의 단초가 된 순천만 갯벌을 보기 위해 남문 앞으로 가서 셔틀버스를 타고 얼마 안 가니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다. 갯벌을 가로질러 놓은 나무다리를 따라 걷다 보면 파릇파릇 돌아나는 새순들이 웅기중기 모인 곳을 지나고 황금빛으로 너울대는 갈대밭도 지난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주변에 펼쳐지는 암갈색 갯벌에는 짱뚱어가 뛰어나오고 작은 게들이 옆 걸음을 치며 구멍 속으로 숨는 모습도 보인다. 주말에는 갈대열차와 유람선이 운행하지만 우리가 방문한 날은 평일이어서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바다에서 갈대밭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꼬막정식과 짱뚱어 매운탕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는 꼬막비빔밥과 전주비빔밥 등 남도 전통음식과 냉면과 불고기 같은 일반적인 음식 그리고 터키 케밥과 인도카레 같은 외국음식 등을 판매했는데, 다소 붐볐다. 다시 박람회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차시간에 맞춰서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순천만 갯벌에 인접한 도로로 나오니 꼬막정식과 짱뚱어 매운탕 간판을 붙인 식당들과 민박집들이 보인다. 아무 정보도 없이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삶은 꼬막, 꼬막전, 꼬막무침 등 여러 가지 꼬막요리와 짱뚱어 매운탕이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다.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박람회장으로 돌아가서 퇴장할 경우, 동문 밖에 설치된 ‘남도농특산품관’과 기념품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남도농특산품관에는 김, 말린 멸치, 갯김치, 유기농 유제품, 천일염, 돼지감자 등 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질 좋은 농축산물과 가공품들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고, 기념품 판매장에서는 이번 박람회의 로고를 새긴 티셔츠 등 기념품을 판매한다. 기념품판매장에는 물품보관소와 유료 차대여소가 함께 위치해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자연이 빚어낸 천혜의 생태 보고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순천만 일대 111만2천㎡ 면적에 박람회장을 조성하고, 이미 200만 뿌리의 꽃과 42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꾸몄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유치 의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의 박람회들과 다르다. 애초 도시 홍보



나 특정 분야 산업육성이 아닌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의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

순천만은 도심에서 5km 거리로 가까워 도시가 계속 팽창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할 녹지 등 에코 벨트(Eco-belt)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에코 벨트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정원박람회를 유치한 것이다.

우리에게겐 생소하지만 유럽에서 보편화한 정원박람회는 지난 1948년 스위스에서 화훼생산자들이 국제원예생산자협회를 결성한 것을 계기로 정원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정원문화를 즐기고 환경보전과 같은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를 가진 국제행사다.

특히 행사 후에는 박람회장을 생태공원으로 개발해,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로 만들 계획이어서 행사 후 철거하는 다른 산업박람회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25개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지난 2009년 회원투표를 통해 순천만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로 결정함으



로써,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제전문기관이 공인한 정원박람회가 됐다.

다시 찾고 싶은 순천만정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봄, 여름, 가을에 걸쳐 6개월간 열린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피는 꽃이 다르고 나뭇잎의 색이 달라질 것이다.

김 주무관은 시기에 따라 꽃을 바꿔줄 예정이라며 시간 차를 두고 오면 여러 번 오더라도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꽃이 우세하지만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공원을 유지하게 되므로 해가 가면서 나무가 울창해지면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서 더 매력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주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하루 일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면,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구례, 여수, 보성 등 인근 지역과 연결해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순천만을 연결하는 셔틀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박람회 유치 의도대로 순천시가 에코 벨트를 통해 개발을 제한해 천혜의 습지를 보호하고 생태관광 도시로 발전함으로써 자연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라면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열차에 올랐다.



조각가 박조유가 전하는

아스맛 예술 세계



아스맛 예술이란?

무엇보다 순수한 것으로서 현대성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예술이다. 오늘날의 조형세계에서 전통문화물을 단순 복제하는 양태라든지 서구문화의 무조건적인 추종을 반성할 단계에 이르러 있는 우리에게 이 아스맛 미술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원초적 감성의 심오한 세계를 일깨워주는 조형물로서의, 그야말로 신비의 세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환경과 삶의 일체성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감성이 오묘한 형상으로 드러나 있다. 이는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고 정신적, 조형적 요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스맛 예술의 특징과 중요성

선사시대미술이 아닌 것으로서 현존하는 원시미술 (Primitive Art)로 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종족의 미술품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서파푸아 아스맛 목조미술은 문명의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갑자기 솟구쳐 나온, 그야말로 놀라운 조형 세계다. 이는 미술 양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크기와 종류 면에서 어느 종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용과 규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祖上)들의 형상을 조각한 ‘비스’라는 통나무 기둥 조각은 (Poles) 높이가 5~6미터에서 10미터나 되며 자메스(방패)도 2미터 정도이고 우라몬(영혼선)은 5미터, 그리고 10미터짜리 오무,웨넷 등의 인물조각상 모두가 세계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걸작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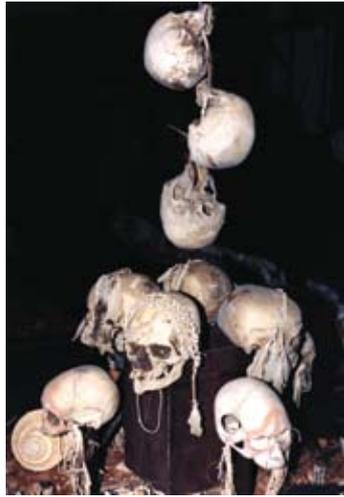
이네들은 별거벗고 살아가면서도 음란하다던가 추잡하지 않은 생활방식을 갖고 있으며 원초적 감성의 세계를 순박한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성기 표현물은 우리 인간성의 자연적인 상징이며, 특별히 강조되는 생식적 본능의 세계다. 이는 종보존을 위한 원 본능으로서 이를 드러내는 미술적 감수성은 우리네 존재의 근본적 바탕일 것이다. 우리가 아스맛 미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조형물에 담겨 있는 상징의 의미이며, 나아가 이 독특한 조형의 세계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구성의 세계이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조형세계에서 우리의 현실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우리네 몸의 심연에 자리하고 있는 원초적인 감수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이를 통해 보다 고양된 조형세계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스맛 미술은 인류학적으로나 사회·심리학 그리고 미학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조형세계의 화두이다.

아스맛의 간단한 지난 이야기

식민정부 네덜란드의 출현은 아스맛의 서북쪽 미미카(Mimika)로서 아스맛(Asmat)은 마땅한 이름이 없었다. 미미카족은 아스맛 사람들을 「웨 마나 웨」라 하였다 We mana we는 사람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네덜란드인은 이때문에 아스맛 사람들을 「마노웨」라 불렀다. 미미카인들은 아



스맛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지내는데 1928년엔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0여명의 아스맛 사람들이 10여척의 통나무 배로 아투카 (Atuka) 마을에 쳐들어왔고, 이곳은 네덜란드 정부가 있는 코

코나오 근처였다. 아투카에 학교를 준비 중인 책상과 의자들을 부수고 못을 끄집어 내고 쇠로 만든 연장과 끌들을 가져갔다.

그 후, 1931년 아스맛 침략 일당들은 성난 미미카 사람들과 네덜란드 경찰이 설치한 덫에 걸렸고 17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침략은 멈추었다.

1942년 소수 일본 군대들이 아스맛 영토를 장악하였다. 지금 서부 아스맛 카피, 아오, 아스-아탓, 그리고 야운-유프리 마을과 미미카 지역에도 1000여명 이상 점령하였다. 이때 혼란과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종족간의 싸움이 증폭되어 지속되었고, 1946~1948년 일본군이 퇴각한 전쟁후에도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초래된 위기감으로 혼란하여 시렛강 하구쪽 암보렘과 와세마을 사람들은 동쪽, 먼 디굴강 지역으로 도망가서 유랑자가 되었고, 에웰, 수루, 아잠, 야마스-에니, 카피, 아오, 나카이, 아스-아탓 등 프랑밍고만 사람들과 서부아스맛 마을 사람들은 미미카 북쪽으로 달아났다.

이때 M,S,C 소속 네덜란드 출신 A Zegwaard 는

쫓겨나온 아스맛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그는 Asmatow(오우)가 우리 사람이란 뜻으로 정령들과 동물과는 구별되는 것이라는 알게 되었다. 얼마후 대부 Zegwaard는 아스맛 선교 사업을 담당했다. 1953년 Zegwaard와 선교단은 아가스 (Agats)에 영원한 본부를 세웠다. 1954년 아가스에 네덜란드 정부도 기지를 마련했다. 이 때, 카사바, 바나나, 코코넛들이 소개 되었고 오리와 병아리도 수입 되었다. 경제 개발은 목재업이 활발하게 되었고 화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 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매력을 느껴 찾기 시작했다.

아스맛에는 여러 그룹의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는곳을 아사메, 아스므르 아사맛 등등 그들이 부르는 것을 유럽인들이 「아스맛」이라 통칭하여 부르기 시작했다. 프랑밍고만 지역 해안 방언 연구와 아스맛 종족들의 전쟁과 인간사냥을 연구하려는 학자들이 오기시작했다 네덜란드 정부 박물관 Amsterdam, Rotterdam, Leiden의 박물관 학예관들이 앞을 다투어 왔고 수십 차례 수집하였다. 하버드대 탐험대가 다니족이 사는 고지대 발림 계곡(Baliem Valley)에 가기 위해 찾았고, 미카엘 록펠러(Michael. Rockfeller)는 미국의 박물관용으로 목조각을 수집하기 위해 왔으며 1961년 11월 그의 두 번째 여행에서 베즈강(Bets) 어귀에서 보트가 전복되어 실종되었다. 당시 뉴욕 주지사였던 미카엘의 아버지 넬슨 록펠러(Nelson Rockfeller)은 75명의 보도진을 대동하고 수색을 나섰으나 영원한 실종이 되고 말았다.



‘20세기가 되도록 뼈로 만든 칼과 돌도끼 등을 사용하며 석기시대에 사는 아스맛 사람들. 그들의 예술’이란 제목으로 메스킴을 장식했다. 그들은 뛰어난 예술감각을 지닌 식인종이라는 루머들과 함께 아스맛 목각 예술을 세계 알렸다.

1962년 10월 1일 U.N은 잠시 인도네시아에 과도기 통치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이는 네덜란드에게 뉴기니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 시기에 뉴기니아에서 일하고 있었던 네덜란드 인들은 통치권의 긴박한 이동으로 섬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귀한 아스맛 조각품들을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열성이었다. 또한 가수아리 해안과 서북 아스맛 지역에는 조각품들을 팔기위한 부가적 기회로 전문 수집가들이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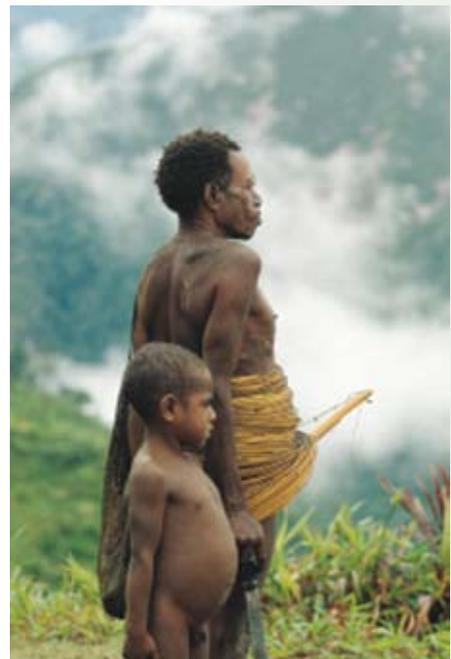
1963. 5. 1 그 당시 이리안 바랏 (Irian Barat=서뉴기니아)은 완전한 통제를 할려고 인도네시아 소규모 군인과 경찰이 아스맛에 왔다. 인간사냥 (Head hunting)에 대한 금지의 구실로 의례용 축제에 사용되는 북, 방패, 인물 조각상, 등 모든 조각을 금지했다. 가지고 있는 옛 조각도 많은 것을 파괴하도록 명령했다. 춤과 노래도 금지했으며 제위(남성의 집)도 불사르게 했는데 이는 O.P.M (Organisasi Papua Merdeka)을 막는 조치로 독립운동을 할려는 불만 세력의 모임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금지 조치는 약 10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는 아스맛 사회 붕괴를 초래했고 전통적인 문양의 세계가 뜻 없이 소멸되어 갔다.

1968년부터 U.N과 협의에 아스맛을 외부세계에 개방 되도록 하였으며 U.N은 아스맛을 돕는 상업적 경제 계획과 아스맛 예술 프로젝트가 1974년까지 지속 되었다. 사실상 인류학자 카톨릭 사제 세계 여러 나라 박물관이 아스맛 예술을 보호하기 위해 줄기찬 탄원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던 아스맛 예술은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

1972년 미국인 주교 수와다 (Alphonse Sowada)는 아가스에 아스맛 진흥 박물관 (Asmat Museum of Culture and Progress)을 열었다. 아스맛 인들이 이용하는 박물관으로서 1982년에는 최초로 훈련 받은 관장도 두었다. 말루꾸 출신 에릭 사르콜 (Eric Sarcol)에게 교육과 여행 자금을 주어 미국 유럽 박물관돌아보게하였다 지금도 아스맛 관장으로 있다.

아스맛 프로젝트는 아스맛족 사이에 목 조각과 다른 문화도 재 활성화 되어지고 가끔씩 금지 되었던 축제가 다시 개최 되었다. 목 조각가 들도 점차적으로 자긍심을 회복하였고 그들의 솜씨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즈음 미국인 화가 토비아스 (Tobias Schneebaum)는 Sowada 주교를 도와 수집과 연구를하면서 인류학자가 되었고 주요한 업적을 남겼다.

(다음호에 계속)





제9차 헤리티지 탐방 국립공원 할리문 산에 오르며

IHS회장 이수진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헤리티지)에서 산행을하기로 하고 좋은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산악회가 등산을 자주 다닌다는 것을 알고, 산악회에 쉽고 초보자가 갈수 있는 산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때 조건은 햇빛이 별로 없고 산이 시원해야 하고 등산코스가 어렵지 않고 가는데 차가 막히지 않는 것이었다. 산악회의 임원들이 위의 조건에 합당한 산을 고심 끝에 골라낸 산이 바로 할리문 산이었다.

산악회의 도움을 받아 간 국립공원 할리문은 정말 햇빛이 없이 아름다워 거대한 나무가 많아 등산로를 우거진 수풀이 덮어주어 시원했다. 산 입구까지 차를 타고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곳이 이미 산 중턱이어서 울창한 산세가 엄청나게 거대하고 느껴질 정도로 산세가 깊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산 밖에 없는 산속의 산이었다. 공기가 아주 맑고 좋았다.

탐방 당일 아침, 국립공원 할리문 입구가 동문과 서문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두 팀은 서로 다른 입구에서 한참(?) 기다리기도 했고 결국 동문에서 가까운 Curug Ngumpet 산행 시작 기점에서 만났다. 엄청 많은 분들이 알록달록 이쁜 등산복장을 하고 모여 들었다. 산행 참가자는 총 29명이었다. 헤리티지에서 미리 만들어간 길 찾는 법과 할리문 산에 관한 글이 쓰인 안내책자를 나눠주고 평지에 모여 5분간 스트레칭을 했다. 너무나 어색하고 쑥스러운 자리였지만 그래도 몸을 푸는 것이 산행 초보자인 헤리티지 회원들에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되어 일부러 산행 전 준비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들 싫은 내색을 안 하고 빙둘러서서 같이 열심히 몸풀기 운동을 해서 좋았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준비해 간 초콜렛도 하나씩 나눠드리고 온천에 가서 삶아먹을 계란도 집이 될까봐 미리 서로 나눠 들기를 청하였다.

산을 올라가면서 산대장님을 중심으로 앞장서서 나아가는 선발대가 먼저 출발을 하고 나는 후발대를 자청했다. 내가 후발대를 자청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몇 달 전에 어떤 산을 가면서 산을 타는 가장 좋은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산을 잘 못 오르는 어떤 친한 분과 동행하였을 때 아주 색다른 체험을 했다. 나는 그 산을 10번 정도 가보았는데 그때마다 나의 특유 과시법으로 속도를 내서 빠르게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문제는 산행 다음날이었다. 늘 다리가 많이 당기고 근육이 완전히 뭉치고 딱딱하게 되어 다음날은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했다. 산에 갔다 왔으니 의례히 늘 그런 줄로 알았다. 너무 급하고 빠르게 올라가서 근육이 아팠던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

어느 날 친한 언니가 동행을 요청하면서 산행을 잘 못하니 천천히 가자고 하여 조금 천천히 걸었다. 그 산행 다음날은 다리가 전혀 안아프고 평소 때와 같았다. 전혀 산에 다녀온 것 같지 않았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 때 산행을 하면 급하게 걸어서 다리 근육에 아주 무리가 되어서 결국 다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을 가면 급하게 걷거나 일부러 빠른 걸음을 즐기곤 하던 그런 버릇을 싹 고치게 되었다. 그 이후 산을 가면 가급적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천천히 걷는 편이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날 다리근육이 땡기지 않고 많이 아프지 않다. 산행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법이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오래 살면서도 산에 오른 적이 별로 없어서 이번 등반은 아주 뜻깊은 행사였고 산에 가면 분화구와 온천이 있다고 해서 큰 궁금증을 안고 출발하였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 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아

서 아주 힘들었다. 아직도 비가 자주 오는 때라 그런지 물도 많고 돌도 아주 미끄러웠다. 등산로는 양쪽으로 울창한 나무가 그늘을 만드니, 햇빛이 없고 그늘로 계속 가려져 있어서 물에 젖어 있었다. 산은 더운 기운이 없고 참 시원했다. 산속에서 걷기에는 참 안성맞춤의 날씨였다. 파란 하늘에 날씨가 쾌청했다.

우리가 출발한 등산로 입구는 900미터 정도 높이에 있고, 그 위치에서 산행을 시작해서 최고봉은 1929m 이지만 1500m 정도에 위치해있는 까와라투 (Kawah Ratu, Queen Crater) 를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하였다. 산을 두 시간 정도 올라가서 보니 산 위에 희한한 풍경이 펼쳐졌다. 계곡에 쌀뜨물처럼 뿌연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노란 유황천이 흐르고 있었고 나무가 줄기 채 뽑혀서 여기저기 텅굴고 있었다. 뜨거운 화산 불에 덴 돌과 나무 자국이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푸르고 울창한 등산길에 비하면 대조적이었다.

어느새 우리가 구멍이 뚫린 거대한 화산석위에 서 있었다. 화산은 실제 어떤 형태로든 폭발하다가 멈춘 모양이었다. 위력이 크지 않아 화산재가 그리 멀리까지 퍼지지 않았던 것 같다. 화산석으로 덮인 데를 지나 고개를 하나 넘어가니 넓게 화산석으로 뒤덮인 곳이 나왔는데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멀리서 보니 아주 장관이었다. 가까이 가보니 계곡 아래에서 사람들이 온천욕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들도 선발대는 벌써 발을 물에 담그고 있었다. 하얀 김이 모락 모락 피어올라서 멀리서 열굴이 잘 안보일 정도로 뿌연게 흐렸다. 돌과 바위 틈에서 철새 없이 김이 피어 올랐다. 바위 위에 앉으니 바위 표면이 따끈 따끈했고 어디선가 김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참 신비롭고 멋있는 경치가 산중턱에서 나오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산 계곡에서 옥색의 강물이 흐

르고 있었는데 참으로 빛깔이 곱고 아름다웠다. 뜨거운 물 뿐 만 아니라 찬물이 뽕뽕 솟아오르는 웅덩이도 있었다.

20분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점심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서 먹기 시작했다. 다들 맛있는 걸 많이 싸와서 나누는 모습이 아주 보기에 좋았다.

점심을 먹자마자 하산을 시작했다. 산에서 위로 올라가는 뜨거운 김과 공기 때문에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언제든지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다. 멀리서 파란 하늘이 있는 게 보였지만 바로 위의 하늘은 엄청 짙은 먹구름이었다. 산이 워낙 높은데다 바로 온천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과 공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하산을 시작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약간 더 쉬웠다. 눈에 익은 구멍 난 바위들을 뒤로 하고 다시 푸르른 산으로 들어갔다. 내려오면서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길을 헤맬 정도로 갈림 길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있지 않았다.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계속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왔다. 계곡을 지날 때마다 시원한 바람이 계곡으로 불어와서 시원했다. 계곡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차가워서 손을 담가 씻으면 산행의 피로를 말끔히 가시게 해주었다. 나무를 바라보고 산에 집중을 하며 걸었더니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다. 단 하루의 산 속의 여정이었는데, 몇 일 동안 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산이 주는 효과가 그만큼 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산하기가 참 아쉬워서 좀 더 쉬면서 천천히 내려왔다.

아주 멋있는 산이고 화산 때문에 신기하고 독특한 곳이었다.

(2013년 4월 14일)



연재



서미숙 / 수필가
gaeunsuh@hanmail.net

맑고 아름다운 향기

행복 에세이



‘까르르’ 갓난아기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청자 빛 같은 맑은 소리다.

갓난아기의 해맑은 얼굴에서 향기가 난다. 별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 내는 아름다운 꽃의 내음도 이처럼 향기로우려 할까 싶다. 아무런 욕심이나 근심이 없어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주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일게 하는 순수, 그 자체의 향기다. 아무리 같이 있어도 취하지 않고 싫증이 나지 않는 향기다.

얼마 전 한국의 문인들과 함께 ‘문학 나눔 콘서트’로 지체부자유자가 생활하는 학교와 병원, 유아원에 봉사를 간 적이 있다. 다시 이곳 자카르타로 돌아와서도 내 생활 곳곳에서 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는다. 살을 에는 혹한에서도 몸을 추스르고 버틴 후 피어나는 꽃이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처럼.....

말이 나눔이고 봉사이지 사실은 배우는 게 더 많은 곳이다. 봉사는 이름으로 나눔을 주면서 남아서 덜어주는 자선이 아닌 내 마음의 향기를 나누고 진정한 향기를 비어있는 내 마음 한 편에 가득 담아오니 말이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추락해 재해를 입었다는 이를 만났다. 갈 때마다 매번 그의 아름다운 미소를 만난다. 그는 사지가 불편해 어느 것 하나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의 밝은 미소는 언제나 주변을 환하게 비추인다. 오랜 투병생활은 그의 곁에서 모두를 떠나게 만들었다. 형제도 떠나고 친구도 떠났다. 2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냈다고 하니 누군들 그 옆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그곳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몸이 성함을 감사하게 느낀다. 불편함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불현듯 미안하기도 했다. 그들도 나와 같이 마음껏 움직이고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엘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느 날 재해환자인 그에게 친구라는 이가 찾아왔다. 그 친구는 오자마자 분주하게 무언가를 챙기더니 이곳에 있는 친구를 목록시켜주기 위해 멀리서 왔다는 것이다.

차를 여섯 시간이나 타고 새벽부터 달려왔다고 한다.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아 자신의 몸도 그렇게 성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벽에 매달아 놓은 줄을 의지해 겨우 상반신을 일으킨 친구환자는 “뭐 할라고 왔노” 미안해서인지 통명스러운 경사도 사투리로 한마디를 던진다. 그러면서도 얼굴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화사한 기색이 돈다.

“니 불라고 왔제.” 친구는 웃음으로 받아 넘기고는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친구를 휠체어에 옮긴 뒤 병실 밖으로 밀고 나갔다. 그가 나간 뒷자리에 천사의 모습과 같은 잔영이 맑은 향기로 변하여 내

안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도 재해를 입어 같은 병원에서 입원을 했었던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그저 같은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는 것만으로 자신보다 더 불편한 친구를 돌보는 그였다. 그의 말에서는 크리스탈 살짝 스치는 소리보다 더한 맑음이, 그의 마음에서는 자스민보다 더 은은한 향기가 묻어 나오는 듯 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씨가 이렇게 맑을 수 있으며 마음에서 배어 나오는 진정한 내음이 이토록 향기로울 수 있으랴. 또한 맑음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피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갔단다. 그 사람도 예외 없이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았는데 염라대왕이 그만 오심을 하여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지옥에서는 새로 온 이 사람을 위하여 성대한 환영만찬을 베풀었는데 그 자리엔 많은 사람들이 참석 하였다. 음식도 푸짐했다.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식탁에 놓인 젓가락이 1 미터나 되는 긴 것이어서 도저히 음식을 집어 입에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착한 사람은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 염라대왕이 오심을 정정 해주었기 때문이다. 극락에서도 성대한 환영잔치가 열리고 지옥에서와 마찬가지로 푸짐하게 음식이 나오고 긴 젓가락이 놓여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극락사람들은 지옥 사람들과는 달리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음식을 잘 먹는 것이었다.

그들은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자기 입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앉은 사람이 집어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이었다.

착한 사람은 극락과 지옥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를 깨달았다.

이세상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서로

의 관계에서 나라는 주체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복해 지기도 하고 불행해 지기도 하는 것 같다.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고마워하는데 인색하여 부정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남은 생활은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사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 중에 많은 깨우침을 남겨준 이들도 많을 것이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니까 말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많은 인연을 만났음에 감사한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연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서 좋다. 그들의 모습에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서 좋다. 서로가 서로에게 맑고 귀한 향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삶을 살고 싶다. 오랜 인연이 변치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다.

마음의 폭을 조금만 더 넓히고 보이는 시야를 조금만 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면 살아가는 동안 넉넉해진 마음으로 맑고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온화한 마음, 맑고 향기로운 마음, 그 마음이 늘 한결같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본의 아니게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주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서로의 조그마한 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맑고 소중한 향기는 어쩌면 우리가 쓰는 ‘시’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른다.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함축된 의미의 언어처럼 많은 것을 말하니까... 시처럼 들어내 놓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물들이는 향기로운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도 이 세상은 충분히 살아 불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조각우돌 인도네시아 풍류기(4)”

이준규 (외환은행)

‘아두~’ ... 어느 날 밤 퇴근길에 갑자기 기사아저씨의 외마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아두(ADUH)’ 라는 단어가 위급한 상황 또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쓰이는 말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날 밤처럼 가슴에 와 닿기는 이곳 자카르타에 정착한 이후 처음 이었습니다. 차창밖에는 세찬 빗줄기가 그야말로 쏟아 붓고 있었고, 조금 늦은 퇴근길이었습니다. 장소는 집에 거의 다 와서 있는 집 근처 사거리였으며, 우회전을 기다리며 서있던 우리 차를 상대편 차가 무리하게 앞으로 지나가려다 앞 범퍼를 치고 간 것입니다. 집에 가서 따듯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던 상황에 벌어질 일이라 귀찮고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샤워대신 비를 흠뻑 맞았음은 물론이고, 사고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해준 보험료보다 두 달간의 차수리 기간으로 인한 렌터카비가 더 많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도로가 작고 차가 많은 이곳 자카르타에서 사고가 없이 지낸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사고는 아니더라도, 서울 출근길의 시청앞 지하철 1호선역이나 4호선 수유리역 근처에서 내 몸이 나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처럼, 자카르타 퇴근길의 우리 차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커브를 틀던 오토바이가 툭툭 건드리고 가기 일수이며 신호대기 중일 때는 한참들 기대어 쉬어가는 곳입니다.

오토바이들이 항상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등도 없이 짙 막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오토바이들

이 마치 전장의 선봉대인 기병대처럼 길을 트고 그 뒤를 자동차 보병대가 따라잡니다. 그래야 시간 내에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시전체가 막히는 이곳 자카르타에서 조그만 접촉사고보다는 막히는 도로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막히는 차 안에서 견딜 수 있는 조그마한 재미를 찾는 일이 어찌보면 여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중국의 요순시대의 정치가 백성을 위해 물길을 만드는 일이었다는데, 작금에 자카르타에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 도로문제를 해결하는 신화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행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에게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주말이면, 경주로, 목포로, 강원도로 우리 애마를 타고 다니는 여행은 온 가족이 손뼉아 기다리는 인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종종 막히는 길을 감수해야 했구요. 눈 오는 대관령입구에서나 귀경길 경기도 이천 근처 국도에서 끔찍한 상황은 차라리 내려서 걸어가고 싶은 심정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가족만의 대처법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차세대 멤버인 아들녀석은 손에 핸드폰만 쥐어주면 그야말로 ‘cukup’ 입니다. 한 시간 정도는 너끈히 정말 귀족은 듯이 조용합니다. 평소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는 물건이기에 그 순간에는 말 시키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남은 우리들에게는 역시 라디오가 최고였습니다. 항상 줄리던 귀경길에 들었던 개그맨 켈투의 프로그램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줄음방지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번의 대처법은 끝없는 수다입니다. 각자의 삶이 바뀐 우리 세 식구는 그 동안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되면 우리동네에 누구네 집 애가 무슨 과목을 잘 하는지, 윗집에서 누구의 소개로 최근에 아이스크림스폰을 샀는지 까지 알게 되며, 아이가 하는 오락의 3단계를 깨기 위해서 어느 악당의 어디를 맞추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할 한가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이사이에 추임새를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몇 시간 들인 노력이 한 순간에 날라가게 되지요^^.

세번째 방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좋은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비록 지루한 도로 위에서라도 좋은 노래 한 구절을 만나면 그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문세, 이승철의 절절한 노래가사가 너무 잘 들려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럴 때엔 평소에 흥얼거리는 잘 아는 노래도 마치 다른 노래처럼 새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적의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에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 길을 잃을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에는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줘서,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이런 순간에 센스있게 빗방울이

라도 한두 방울 창을 때리면, 조금 전까지 머리 한켠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생의 긴 고민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노하우는 굳것질입니다. 안방마님이 준비하신 김밥이며, 콩콩얼린 음료수, 먹기 좋게 깎아 놓은 과일에, 자잘한 과자부스러기까지...사정이 이 정도면, 길을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기분전환입니다. 이런 노하우는 여기 자카르타에서도 정말 유용합니다. 오늘도 비오는 일요일 오후 어김없이 막히는 길에서 김창환씨의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립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 서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그래도 역시 제일 좋은 것은 시원하게 땀 뚫리는 길임은 물론입니다.





할랄푸드란

What is halal food?

이슬람교인은 육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할랄(halal, 허용) 즉, 이슬람식 도살법에 의해 도살된 고기만을 먹는다.

할랄푸드는 이슬람 율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할랄푸드(halal food)란 이슬람교 의식을 거쳐 도살한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 등을 말하는데 할랄표시가 음식의 모든 과정에 있어야 하며 생고기에서부터 레스토랑 혹은 호텔조리식까지 할랄의 표시가 있는 음식만을 사용한다. 또한 철저하게 할랄이 아닌 음식과 분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청결한 음식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하람의 요소가 있는 것들로만 할랄푸드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슬람 방식으로 종교적인 율법에 기초하여 고기를 잡기 때문이다.

할랄푸드는 「샤리아법(이슬람법)」에 의해 부정된 음식으로 간주되는 것들 즉 돼지고기, 피, 개고기, 썩은 고기와 같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청결하지 않은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랄푸드에 따른 도살방식은 도살할 때 「비스밀라」(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먼저 외쳐야 하고 날카로운 칼로 짐승의 목을 단번에 베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음식을 위해 생명을 잃는 짐승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목을 베 후에는 거꾸로 매달아 몸 안의 피를 모두 빼내야 하는데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먹지 않으며 피를 뺀 고기는 쉽게 부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슬람교도들은 『알라나 알라의 사자인 모하메드와 분리된 다른 신은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알라는 인간과 우주를 창

조했다고 확실하게 믿는다. 따라서 알라의 명령과 가르침 그리고 모하메드의 예시들을 진심을 다해 따라야 하며 이슬람교도들이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슬람교도들은 승인되어진(할랄) 것과 금기시 되어져서 하지 않아야 하는(하람) 것에 의지적으로 혹은 기꺼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슬람에 있어서 할랄과 하람의 의미는 단지 식품 소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적이란 것은 인간의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생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 할랄푸드 생산과정은 어떤 금기시되는 것들은 포함하지 않아야(하람) 하고 영양적(Toyyib)이어야 하는 이슬람법에 따라야 하므로 이슬람교도들 뿐만 아니라 비 이슬람교도이지만 할랄푸드를 사용하여 영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식품이다.

「할랄(halal)」이란 의미는 「승인된」, 「허락된」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할랄」의 반대되는 뜻을 가진 「하람(haram)」은 「금지된」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토입(Toyyib)」이란 말은 「좋은」, 「영양적인」, 「위험이 없는」이란 뜻을 갖고 있다.

할랄푸드 표준과 다른 산업 식품표준과의 차이점

할랄푸드 표준은 전체의 식품과정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표준 시스템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 생산체인은 철저하게 이슬람법에 따른 「할랄」이어야만 하며 원재료에 있어서 첨가물, 즉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기타 불결한 혼합물과 같은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하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식품생산에 있어서 청결과 영양학적적인

가치 그리고 건강에 좋은(Toyyib) 것과 같은 높은 품질의 식품의 질을 보장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식품생산 안전을 위한 시스템인 GMP, HACCP, ISO처럼 할랄푸드 표준 역시 식품 안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할랄푸드는 정직성과 가치를 기초로 한 이슬람 법률에 근거를 둔 반면 일반적인 국제적인 식품 표준들은 이슬람 법률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식품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할랄푸드 생산시 따르는 규제들

할랄푸드를 생산할 때에는 식품생산을 위한 설비 및 장소의 조건은 청결해야 하며 동물의 배설물, 피, 타액 등과 같은 이슬람법에 의해 금기시되는 불결한 것들을 의미하는 「naysis」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할랄푸드에 사용되는 장비와 도구 역시 이슬람 법률에 따라 청결해야 한다. 할랄 및 하람(haram)에 둘 다 사용되는 도구들은 할랄푸드 제품을 위하여 사용되기 전에 철저히 청결을 유지해야만 하며 생산자들의 청결상태가 감시기관에 보고되고 검사원이 청결유지 과정을 모니터한다.

중요 생산과정에 대한 감독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슬람교도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생산라인에서는 이슬람교도가 아니어도 된다. 만약 특정 생산자가 할랄푸드 제품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할랄로고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할랄 로고를 부여하는 유일한 인가신청 기관인 중앙 이슬람위원회에 먼저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할랄푸드에 대한 승인과 할랄로고 사용은 중앙 이슬람위원회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진다.

할랄푸드는 신선재료와 원료 그리고 첨가물 모두가 할랄이어야 한다. 즉 생산자는 날 재료와 첨가제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할랄 승인양식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원재료나 첨가제가 혼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원재료가 저장, 운송, 생산, 고객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 할랄(하람:Haram)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신선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랄의 원재료는 적절한 준비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세척시에는 큰 탱크나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 재료일 경우에는 이슬람법에 따라 세척해야 하고 동물의 도축 역시 이슬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도록 되어 있다.

할랄푸드를 생산하는 제조공장은 이슬람법률과 기타 다른 산업 및 관련된 표준들에서 수반되어지는 청결성이 요구되어진다. 할랄푸드 제품은 할랄이 아닌 것들과 비슷한 구분에 의해 비교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분리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알콜이 함유된 음료 등과 같이 이슬람법에 따라 금지된 비 할랄푸드 제품은 할랄푸드 제품의 조건에서 제외된다. 원재료와 식품 원료들은 인간이 소비하기에 적합하도록 식용에 알맞고 안전해야만 하는데 이때 할랄인증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할랄푸드 제품의 원재료는 국내에서 동물들이 근접할 수 있거나 동물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없는 깨끗한 장소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할랄푸드 제품의 원재료는 비 할랄 상품들과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이어야 한다. 할랄푸드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원료들은 사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생산 라인에서 사용되어지는 날 재료나 원료들은 사용되어진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세척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비할랄푸드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들은 할랄푸드 제품으로 생산되기 전에 이

슬람 방식에 서술한 대로 세척하거나 청결하게 되어야 한다. 또한 할랄푸드 제품에 사용된 모든 장비들은 비 할랄푸드 제품에 사용되는 장비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신적 신전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국립박물관 Museum National

(구관 2편 제9전시실-제4전시실)

모든 유산은 위대한 의미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소중하다. 조국이 아닌 이국이라 해서 다를 바 있겠는가. 그것은 곧 삶의 과정이며 생존의 흔적이며 이상이고 희망인 것을. 아니, 우리들의 삶 그 자체인 것을.

제9전시실-청동관

청동관에는 불사조 한 마리가 영혼을 시바 신상에 매달고 이끼 낀 날개로 청동거울을 닦고 있을 것 같다. 이곳에 전시된 약 3,000 품목 중에는 청동도끼, 장신구, 물그릇 그리고 불교·힌두교의 신상도 많다. 인도네시아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세기이며 청동의 유입은 삶의 문화적 측면을 많이 변화시켰다. 손상이 쉬운 살림도구들은 청동으로 바뀌었다. 고고학적인 발굴품인 5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불교와 힌두교 문화의 여러 상들이



많은데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자세히 관찰하면 불교 상들의 손이 빈손인데 반해서 힌두 상들은 물건이나 무기를 들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힌두 3대 신인 파괴의 신인 시바(Shiva), 보호의 신인 브라마(Brahma), 창조의 신인 위스누(Vishnu)는 그들이 타고 다녔던 물소, 거위, 가루다 청동상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 불교왕국은 7세기-9세기까지 지속되었고, 힌두왕국은 7-14세기까지 유지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불교보다 힌두교의 신상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힌두교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무역과 학문, 방어 신인 가네샤 상도 많이 볼 수 있다. 자비의 여신 타라 신상에 앞에 서면 ‘슬퍼마세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나갑니다.’ 라고 위로하는 소리가 들린다. 신앙심을 키우고 악령을 쫓아내는 사원에 매다는 좋은 윗부분에 위스누 신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저물녘, 달려오는 어둠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종소리’ 라는 시가 생각난다. 빛의 신인 가루다가 앉아있는 등잔 앞에 서면 한줄기 바람이 지나간다. ‘등불 하나가 내 속으로 걸어들어와 환한 산이 되고 등불 둘이 걸어들어와 환한 바다가 되어 모든 그림자 쓰러뜨리고 가는 바람 한줄기’ 라는 시처럼. 또한 태양의 신 수르야가 일과를 마치는 밤이 되면 그를 위해 등불을 밝힌 위스누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 누워있는 누군가의 꿈 한 자락을 위해 등불을 밝혀야겠지. 향해자들을 보호하는 바다의 신 디판카라 불상(Buddha Dipankara:연등불)은 팔이 잘려져 있다. 배를 보호하지 못한 벌일까? 자연의 힘을 감

당하지 못한 상처일까? 아니면 이렇게 온몸을 던져 도전함으로써 살아 있음을 느꼈을까? 잘려진 팔에 허공이 묻어있다. 밀랍주조 기법을 사용하여 속이 비어 있는 이 유물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청동 부처 상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중부 자바에서 온 부(富)의 신인 잠발라(Jambhala) 상은 정교한 옥좌에 앉아 오른팔은 풍요의 쌀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에는 다산과 부를 상징하는 과일, 왼손에는 재물을 상징하는 몽구스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가지고 있다. 불교·힌두교 신자 모두가 존경하는 신이다. 예나 지금이나 부(富)를 좋아하는 것은 인지사상(人之常情)인가. 종교의식 때 사용한 성수를 담은 물그릇과 청동 제기는 정교하고 단단해 보여 신의 문신이 새겨져 있을 것 같다.



제10전시실- 선사시대 유물관

이 전시관에는 고고학적이면서도 진귀한 전시품이 많은데 특히 자바원인 두개골의 복제품 - 피테칸트로푸스에렉투스(Homo Pithecanthropus Erectus)가 있어서 이 박물관을 더 유명하게 한다. 1891년 우젠 듀바(Eugene Dubois)가 발견했다. 다리뼈를 보면 직립(Erectus) 원인(原人)임을 알 수 있는데, 인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인류가 자연인에서 문명인에 이르는 모태가 되었다는 자바원인의 두개골은 쉼하게 뚫린 두 개의 눈으로 낮선 관람객을 마주 보고 있다. 그 안에 든 어떤 생각이 불과 문명을 일구었는지, 깊이를 알 수 없는 생각의 무덤이 두개골로 집약되어 있다. 시간의 처녀들과 함께. 바로 옆에 북경원인의 두개골도 있다.



여기에 또 하나 흥미를 더하는 유물은 기원전 1000년에 베트남 북부에서 사용한 가마솥처럼 생긴 청동 북이다. 이 북은 위험을 알릴 때나 거족적인 여러 행사에 사용했다고 한다. 윗면 가장자리에는 네 마리의 청동 개구리(비와 번영의 상징)가 놀래면 금세라도 뛰어내릴 듯 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있다. 우리나라의 청개구리 설화를 생각나게 하고, 울음소리와도 관련지어 기우제를 연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북은 대체로 해상무역 경로에서 발견되었다. 청동 북에 양각되어 있는 기하학적인 무늬·배·집·별들은 도자기와 직물 디자인 패턴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선사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 다니족 여성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난초줄기 섬유를 이용한 가방 노켄(Noken)에는 무수한 시간의 흔적이 박혀있는 것 같다. 여러 종류의 도기 중, 준보석에 해당하는 광석으로 만든 네모꼴 돌도끼는 값진 재료로 미루어보아 부적이거나 부장품 또는 물물교환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청동 구슬 목걸이도 전시되어 있는데, 구슬은 화폐로도 사용되었으며 부장품으로 발견된 이 구슬은 저승 가는 길의 노자 돈으로 무덤에 넣은 것이다. 석관들의 칸막이로 사용한 돌로 된 벽에 새겨진 벽화에 손가락과 황소 머리가 그려져 있는데, 아마 사후 세계로 가는 영혼의 명복을 비는 의미로 추정된다. 벽화가 얼마나 예술적인지 두려움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밀려온다.

제11전시실- 도자기 전시관

Ceramic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도자기 신인 Keramos에서부터 유래되었다. 도자기는 흙과 불과 혼으로 만들어진다. 이 전시관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기원전 200년부터 18세기까지 생산된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다. 골동 도자기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들이고 모양과 표현 방식에서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하고 깊은 맛을 느낀다. 제 11-1 전시실(제8전시실 전통 가옥관과 연결된 전시실)에는 각종 외국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도자기로 유명한 중국의 것들이 많다. 베트남·태국·미얀마·일본·유럽·러시아·페르시아 등지로 부터 교역용으로 들어온 도자



기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중요한 도자기들은 1932년 네덜란드 자선 사업가이며 수집가인 옥소이 드 플린(E.W.van Orsoy de Flines)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기증했으며, 그는 국립박물관 컷 도자기 큐레이터를 지냈다.

*일본 도자기(17세기~19세기)는 대체로 화려하고 색깔이 밝으며, 금붕어와 장미꽃이 그려져 있으며, 영웅주의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도 있다. *태국 도자기(13세기~17세기)는 코끼리 문양이 많은 것으로 보아 그들이 코끼리를 성스러운 동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 도자기(13세기~17세기)는 중부자바와 동부자바, 칼리만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주로 청색과 흰색이고 중국 도자기처럼 꽃문양과 연결되어 있는 줄 문양이 많았다. 또 메기와 큰 지느러미가 있는 반등(bandeng, milkfish) 문양이 특징이다.

그 외에 미얀마(13세기~16세기) · 캄보디아(12세기~13세기) · 유럽(17세기~20세기) · 중동(17세기~19세기) 도자기도 전시되어 있다.

**중국 도자기는 연꽃과 용 문양 특징이다. 한 왕조(B.C606~AD.220) · 당 왕조(618~906) · 송 왕조(960~1279) · 원 왕조(1279~1368) · 명 왕조(1368~1644) · 청 왕조(1644~1912)에서 만들어진 것이 전시되어 있다. 대체로 당(唐)



왕조는 백자가 많으며, 송(宋) 왕조는 갈색 · 보라색 · 흰색, 원(元) 왕조는 연초록빛, 명(明) 왕조는 흰색 · 보라색 · 청색 무늬가 많다. 6세기 명(明) 왕조 때 사용한 잉어가 그려져 있는 큰 그릇(gold fish bowl)은 붉고 파란 색깔의 대비로 생동감을

준다. 잉어는 장수와 풍요를 뜻하며 자식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란꽃이 그려져 있는 도자기에서 몽롱한 봄기운이 느껴진다. 용 모양으로 된 주전자, 동식물 문양을 가진 약잔도 전시되어 있다. 한편 청나라에서 온 도자기가 유약 바르는 방법이 간단해서 명나라 도자기보다 거칠다. 명 · 청나라의 도자기는 문양이 비슷하고 대부분 백조 · 말 · 사슴 등, 동물이 많이 나온다. 뒤쪽에 있는 유리 장에 중국 현대 도자기가 보관되어 있는데 주로 빨간색과 초록색이다. 또 아랍어로 쓰인 중국 도자기가 있다. 명나라 시대 때 아랍 사람들이 주문한 것이다. 아랍어가 쓰인 의약접시로 사용한 도자기들도 보관되어 있다. 원(元) 왕조 때 사용했던 청백자는 무늬 양식이 이슬람 금속 세공의 문양에 기초하고 있다. 이슬람 시장개척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중국인들의 상업정신을 엿볼 수 있다.

제 11-2전시실(Taman Arca 쪽에 출입구, 11-1전시실과 연결)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도자기는 기원전에 제작한 한 왕조의 도자기이며 이주한 중국인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추측이 된다. 덮개가 언덕형태로 된 향로는 한 왕조의 부장품으로 가장 오래된 도자기이며 약 2000년 전의 것이다. 그 당시에(1세기-2세기)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무역을 했다는 증거이다. 한 왕조가 현물 함으로 사용한 도자기도 있으나 대부분 유골을 넣어둔 도자기이다.

당 왕조의 도자기 중에는 수도승이나 이주자들이 인도로 가는 길에 가지고 온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 후, 무역시대 때 전략적인 항구가 된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상인들이 향료를 도자기와 교환하기도 했다. 송 왕조 때 사용한 청자에는 네 개의 발톱을 가진 용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힘, 명예, 풍

요를 상징한다. 고려청자처럼 그윽하다, 눈이 시리다, 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녹색색으로 된 이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장수한다고 믿었으며, 특별한 의식 때 사용한 만큼 고귀해 보인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도자기를 좋아한다. 전통 도자기는 주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테라코타(terakota)로 중요한 필수품이었고, 집안 용품 또는 장례식용, 유산, 혹은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발효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도자기가 필요했으나 흙이 단단하지 못하고 더운 나라라 높은 온도에서 구울 수가 없어서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중국 도자기가 인기가 있었다. 테라코타 중에 흥미로운 것은 13-14세기에 사용했던 돼지저금통 자기의 양증맞은 모습이다. 그때에도 이미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물병(Kendi)은 마자빠히트(Majapahit) 왕조가 생산했고,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국에서 쓰이는 주전자의 형태를 본 따왔다. 큰 저장 항아리를 마르따반(Martavan)이라고 부르는데 버마향구인 마르따반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안에 쌀과 물을 저장했으며 이렇게 큰 항아리에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다. 때로는 유골을 보관했으며 칼리만탄에서는 용이 새겨진 마르따반을 가보로 여기기도 했다.

서부 칼리만탄의 싱까왕(Singkawang)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도자기와 큰 항아리를 만들었다. 구운 토기, 테라코타, 도기 항아리들이 중부 자바의 뜨갈(Tegal)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테라코타 기술(진흙을 350도~1000도에서 구워서 모



래를 덮고 식힘)이 서부자바와 중부자바, 수마트라, 자카르타 등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동부자바의 마자빠히트 왕국에서 내려온 물 주전자와 목걸이의 장식, 저금통, 물소(nandi)모양의 조각 등 많은 도자기가 뜨로울란(Trowulan) 유적지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 트라빠 화산 모양의 향로와 재를 담은 통, 화분, 향아리도 있다.

도자기 위에 산호가 자라고 있는 송·명 왕조 시대의 사발이 있다.(신관도자기실에 전시) 이는 깨졌거나 질이 낮아 중국 상인들이 바다에 빠뜨린 것을 해녀들이 끄집어 올린 것인데 중부 자바에서 발견한 것이다. 바다 속에서도 숨 쉬는 있었던 도자기의 생명력이 놀랍다.

우리나라의 청자나 백자와 같은 독자적인 도자기 문화는 엿보이지 않고 토기나 도기 문화에서 그친 것이 인도네시아의 도자기 문화인 듯한데, 중국의 당, 송, 원, 명, 청대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중국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인도네시아와 중국과의 교역이 예로부터 활발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긴 동방의 어느 나라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인가. 중국의 콜럼버스라 불리는 정화의 7차에 걸친 원정(1405년-1433년) 이후 화교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원정로를 바다의 도자기 길이라고도 한다.

맑은 마음으로 흙을 만지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올 수 없다. 가마터에 불어오는 숨죽인 봄날 한낮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흙에 감성을 불어넣었을 도공들의 마음의 길을 따라 걸으며 전시관을 나왔다.

제2전시실- 직물관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직물이 전시되어 풍부한 직물 유산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물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의복에서 무늬나 색깔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며, 또 종교의식·결혼식·장례식 등 용도에 따라 달리한다. 인도네시아 직물은 내려오는 전설만큼이나 흥미롭다. 한 여신이 목화를 가져왔고 스스로 베틀이 되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직물은 누군가의 희생과 정성이 없이는 직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긴 전설이리라. 어떤 것은 오래된 양식들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지





만 ‘바틱’으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 직물 발달의 시발점에 있는 여러 직물들은 의식주의 일면을 엿보기에는 모자람이 없다. 바틱과 더불어 대표적인 직물은 이깃(ikat), 송꺃(songket)이다. 이러한 전통직물은 오랜 시간을 소요한다. 직물의 모티브는 대체로 자연에 바탕을 두며 일단 직조가 끝나면 자수, 구슬, 조개껍질 등으로 천을 꾸며 예술성을 높인다. 달과 별, 하늘, 꽃을 많이 바라보는 그들은 자연이 곧 예술임을 알고 있었다.



원시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또라자 지역의 나무껍질로 만든 블라우스와 스커트는 중요 의식에 입었다고 하는 한다. 이 옷을 입은 여자의 신분이 적잖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왕, 귀족, 중부자바의 무희들만이 의식 때 입었던 도돏(Dodot)이라는 사롱(sarung:하반신에 두르는 천)은 보통 사롱의 6배 길이다. 결혼식 때 부부 의상으로도 사용했으며 악을 쫓고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넝쿨줄기모양으로 된 산과 신화적인 동물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품위가 있어 보인다. 발리의 전통 바틱, 째(cap, 도장)으로 찍힌 바틱, 손으로 그려진 바틱 등이 전시되어 있다.

여성의 해방을 주장한 까르띠니(Kartini)가 만든 노란색 바탕의 바틱에 꽃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었



다.(25살 때 죽음) 까르띠니가 만든 이 사롱은 그녀의 가족이 박물관에 기증했으며 그녀는 이 옷을 즐겨 입었고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전통 옷 입기를 장려했다.(까르띠니 기념일 4월 21일) 땀뻘 마주(Tampan maju)라고 불리는 ship cloth는 현재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벽에 걸어 놓거나, 의자에 놓아두거나 기념식 때 걸치거나 조상들에게 무엇을 희구(希求)할 때 사용했다. 배 문양의 천(Palepai)은 수마트라 남서쪽에 있는 크로에(Kroe) 지역에서 온 것으로 중앙의 두터운 두 줄은 조상을 나타낸다. 금실로 수놓은 천은 보통 왕과 왕족, 귀족들이 입었던 천이다. 금실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많았다고 한다. 북부 수마트라에서 수의로 사용했던 ‘바수랏(basurat)’ 천에는 이승과 저승 가는 길 지루하고 두렵지 않도록 코란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한편, 칼리만탄 공주들이 의식 때 입었던 옷을 보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약(Dayak)족의 직물에는 구슬이 자모음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또 파푸아 여자들이 지금도 입고 있는 묶여진 밀짚으로 된 치마도 전시되어 있다. 시간의 빛은 몰락해 간다지만 인도네시아 전통 직물은 흐르는 시간 속어 더 빛나고 있었다. (직물 전시관 앞쪽에 태국관 2003년개관).



제13전시실-화폐전시관(현재 수리 중)

상거래의 혁명을 이룬 화폐가 인간을 행복하게 했는가, 불행하게 했는가를 따져 묻기 전에 그 화폐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건 흥미롭다. BC 500년이나 되는 오래된 것부터 힌두 시절, 지금까지의 화폐의 변천사가 총망라되어 있다.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명도전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1세기 한 왕조에서 사용한 칼 모양의 돈도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 상평통보와 같은 우리나라의 옛날 동전들도 있다. 수라바야, 자바, 칼리만탄에서부터 사용되

어 온 인도네시아 옛 지폐들은 요즘 같은 액면가가 아닌 크기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지폐이면서도 사각형이 아닌 동전처럼 둥근 것이 신기하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모자 모양의 은으로 만든 중국 화폐인데 13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저렇게 큰돈을 어떻게 가지고 다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화폐로 사용한 천도 있었다.

제14전시실-역사유물관

16세기에서 19세기의 네덜란드 식민 역사를 보여주며 유럽인들이 사용한 가구, 램프, 대포가 전시되어 있다. 싱가포르에 있는 래플스(Raffles) 박물관에서 선물로 받은 영국인 자바 총독 래플스(1811년-1816년)의 흉상,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비밀 보물 캐 등이 있다.



땀빠얀(Tempayan)이라고 불리는 물 항아리와 병은 인도네시아인, 네덜란드인, 중국인 부자들이 주로 정원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디쁘노고로 왕자가 1825년 1830년 사이 독립 전쟁 때 사용한 말안장과 창이다. 360년에 이르는 기나긴 식민지 역사를 지배자들이 사용했던 가구와 램프, 대포들로 상기해야 하는 심정이 어떠할까. 거대한 섬들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의 근대는 아픔으로 얼룩져 있다. 그 아픔이 또 다른 의미의 자양분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부터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족자카르타에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이나 뻬람바난 사원과 같은 건축물들도 보아야 하고, 폭발 사고로 더 유명해진 지상의 낙원, 발리 섬도 가야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들은 문화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나라의 특색과 성격과 내력을 흥미롭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테니까 말이다.

인도네시아는 힘들고 깨어진 꿈속에서도 도공의 물레처럼 중심을 잡으며 스스로 베틀이 된 여신이 있어서 아름다운 나라이다.

6월호에 국립박물관 3편이 이어집니다.

MUSEUM NATIONAL

Jl. Merdeka Barat No.12 Jakarta Pusat

Tel : 3811551 / 3447778

화 - 목 : 08:00-16:00

금 : 08:00-11:30 | 13:00-16:00

토 - 일 : 08:00-17:00

월, 공휴일 : 휴 관

입장료 : Rp.5.000 (성인), Rp.2.000(어린이)
/ 외국인 Rp.10.000

한국어 가이드: 셋째 토요일 9:30 (접수 인도네시아)

사공경

(0816-190-9976 / (+62 21) 794 1963 /

Email : sagong@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Yayasan Kebudayaan Harapan Antar Bangsa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Jl. Taman Margasatwa No. 3,

Busway SMK 57 Ragunan, Jakarta Selatan

Tel. (+62 21) 7883 9597

Fax. (+62 21) 7883 9598

Email apakabarindonesia@hotmail.com

jalanjalanindonesia@ymail.com (문화탐방)

lovekoin@hotmail.com



대학교 설립(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3. 전임교수 확보 최소 인원

13.1. 신설 대학교는 프로그램 별로 법정 자격 및 자질을 갖춘 전임교수 최소 6명을 확보해야 한다. 프로그램 안에 학과 별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13.1.항에서 규정한 전임교수 6명 이외에 학과 별 전임교수 최소 6명이 있어야 한다.

13. 2. 신설 대학으로 외국대학과 협력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수를 최소 5년 계약으

로 상기 13.1.항에서 규정한 전임교수로 채용할 수 있으며, 협력하는 외국대학교에서 보낸 자격을 갖춘 교수를 전임교수도 상기 13.1.항에서 규정한 전임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자동으로 전임교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임교수로 인정 여부는 정부에서 결정한다는 뜻이다).

13.3. 대학교 형태 및 프로그램 별 전임교수 최소 인원과 최소 자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형태 \ 자격	아카데미	폴리테크닉		단과대학교/인스티튜트/대학교			
	D1-D3	D1-D3	D4	D1-D3	D4	S1	S2
D4 혹은 S1	6 명	6 명	4 명	6 명	4 명	-	-
S1	-	-	-	-	-	4 명	-
S2	-	-	2 명	-	2명	2명	4 명
S3	-	-	-	-	-	-	2 명
S3 프로그램은 별도로 규정한다							

13.4. 대학교 형태 별 최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형태 프로그램	아카데미	폴리테크닉	단과대학교	인스티튜트	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Diploma	1 프로그램	3 프로그램	1 프로그램	-	-	-
S1	-	-	1 프로그램	6 프로그램	6 프로그램	4 프로그램

13.5. 비교수 요원의 최소 자격 및 최소 인원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형태	아카데미	폴리테크닉	단과대학교	인스티튜트	대학교
비교수 요원					
1. 행정직 D3 보유자 S1 보유자	3 명 -	4 명 1 명	3 명 1 명	4 명 2 명	4 명 3 명
2. 강의 지원직 (기술/실험) DIII 보유자	3 명	9 명	6 명	18 명	30 명
3. 사서직 DIII 보유자 DIV 혹은 S1 보유자	1 명 1 명	2 명 2 명	2 명 1 명	4 명 2 명	4 명 3 명

14. 학생 정원

Diploma 프로그램 과 S1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당 학생 정원은 최소 30이며 최다 인원은 전임교수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과학 분야는 전임교수 1명에 학생 30명, 기술과학 분야는 전임교수 1명에 학생 20명이다.

15. 사립 대학교의 운영비 책임

대학교 운영비 책임은 학교 Yayasan에게 있다.

16. 학교 부지 확보 의무

학교부지는 학교 법인의 명의로 등기가 나와 있는 학교법인 자체 소유 땅 혹은 최소 20년 장기 임차에 임대차 연장권이 학교법인 측이 있어야 하는 땅이어야 한다.

17. 기능 별 전용 면적

강의실은 학생 1인 당 최소 0.5 M2, 교수 1인 당 4 M2. 행정직원은 1인 당 4 M2이며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하며, 실험실, 컴퓨터실, 연구실 등은 별도 해당 청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법정 기능 별 최소 전용 면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형태	아카데미	폴리테크닉	단과대학교	인스티튜트	대학교
시설 및 최소 면적					
강의실	100 m2	300 m2	200 m2	600 m2	1.000 m2
행정실	20 m2	40 m2	30m2	60 m2	80 m2
도서관	150 m2	300 m2	200 m2	450 m2	600 m2
컴퓨터실	180 m2	360 m2	270 m2	540 m2	720 m2
실험실	200 m2	400 m2	300 m2	600 m2	800 m2
전임교수실	30 m2	90 m2	60 m2	180 m2	300 m2
토지	5.000 m2	5.000 m2	5.000 m2	8.000 m2	10.000 m2

18. 외국인의 대학교 설립 참여

외국인, 외국법인 혹은 외국 대학교가 인도네시아의 사립 대학교 설립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단독 설립은 불허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인과 공동 설립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외국 법인 혹은 외국 대학교는 인도네시아 학교법인의 설립에 설립인으로 참여하고, 외국인 개인은 학교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혹은 감사위원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교수 및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겸직도 가능하다. 외국대학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학교 운영 및 학사를 지원하고, 해당 외국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친 경력이 있는 교수 인력으로 S1 및 S2 프로그램에는 최단 7년, Diploma 프로그램에는 최단 5년 간 지원해야 한다.

19. 사립 대학교의 형태 변경

허가받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최소 5회 졸업생을 배출하면 사립대학교의 형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20. 사립 대학교 설립 허가 절차

20.1. 학교법인은 대학교 설립 구비요건인 마스터 플랜 과 투자타당성 조사를 구비하여 교육부 고등교육청장에게 대학교설립 제안서를 제출한다. 미스터 플랜과 투자타당성 조사에는 대학교 설립 배경 및 설립 목적, 재원, 시설, 대학교 운영자, Yayasan 설립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내부교육의 질 보장 기준, 커리큘럼(교과 과정), 교수,

학생, 학칙, 교수 윤리 강령, 학사 분야에 관한 사항, 학문 및 기술 발전과 사회 발전에 필요한 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 계획과 시행 계획, 대학교 조직표, 교수 인력 및 비교수 인력 공급 계획,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계획, 국내외 대학교 혹은 다른 기관과 협력 계획,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와 봉사 계획,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캠퍼스 기본 시설 계획, 대학교 설립 및 운영 재원, 학사, 조직, 캠퍼스 시설 건축 일정 등 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전체 사항을 커버해야 한다.

20.2. 학교법인으로부터 대학교 설립 제안서를 받은 고등교육청장은 대학교 설립 요건, 자연과학의 발전과 과학, 기술, 예술 분야 학문 발전 및 균형, 해당 지역의 기존 대학교 숫자. 형태, 교육 분야, 지역의 지원력, 전력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학문, 이미 충분하니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학문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접수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학교 설립 제안에 대하여 승인 혹은 부결 가능에 관하여 의견서를 학교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0.3. 고등교육청장으로부터 대학교 설립 제안에 대하여 설립 가능 의견서를 받은 학교법인은 설립 가능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학교 설립 법정 구비 요건 이외에, 대학교 설립 자금 보유를 증명하는 은행추천서, 학교법인의 설립정관, 대학교의 정관 및 내규, 경찰이 발급한 학교법인의 등재 임원이 법률 사건에 연류가 없다는 증명서, 자체 소유 토지 등기 권리증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문교부 장관에게 대학교 설립 승인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20.4. 문교부장관을 대리하여 고등교육청장이 사립 대학교 설립을 승인 혹은 부결한다.

사립대학교 설립 허가서를 받은 후 대학교 의회(*총장, 부총장, 단과 대학장, 부대학장, 계열부장, 학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학교 최고의 의결기구)의 제안에 따라 학교법인은 대학교의 정관을 확정한다.

20.5. 대학교 정관이 발효와 동시 대학교는 정상 학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1. 첨언

21.1. 통계 수치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대학 천국이다. 허가를 받은 국립대학교는 92 개

대학교, 사립대학교는 3,124 개 대학교(*전문대, 단과대학교 및 종합대학교 포함)이며, 설립허가 신청을 한 사립대학교가 813개 대학이다(이 중 758개 대학이 허가 진행중). 전체 대학교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대학교 설립 요건이 어렵지 않으며 소자본으로도 대학교 설립이 가능하며, 국립대학교가 아닌 사립대학교의 경우, 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일반 대학교는 대학교 설립 목적인 인재 양성과 영리 목적으로 설립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20여년 전 어느 재벌 회사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자 부자가 설립한 좋은 대학에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기대를 했으나, 십수년 이 지난 지금 그 대학교는 사립대학교 중에 상위권의 좋은 대학교가 되어 있으나 등록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비싼 대학교가 되어 경제능력이 낮은 서민들의 자녀는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비싼 대학교가 되어 있다.

21.2. 사립대학교의 설립 목적은 인재 양성이며, 설립자는 대학교 설립 목적 정체성을

학교 이름에 표시하고 있다. 일반대학교, 이슬람대학교, 기독교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경제대학교, 기술대학교, 법학대학교, 비서대학교, 철학대학교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대학교는 설립목적인 대학교의 정체성을 종교로 선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자신의 종교를 대학교명에 표시하거나 자신의 종교의 성인(A

Saint)의 이름을 대학교 이름으로 쓰고 있다. 특정 종교가 전체 국민의 87%인 특수 상황 때문에 소수 종교의 학교법인이 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자신들의 종교를 대학교의 이름에 표시하여 자신들의 대학교를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21.3.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인한 종교는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및 유교 이상 6 가지 종교이며, 각 종교의 명절을 국경일 휴일로 배려하고 있으며, 종교 교육법은 대학교에서 종교를 필수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종교 학점을 이수하지 않

으면 대학교를 졸업할 수 없으며, 대학교는 학생의 종교에 따라 종교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다. 일반 대학교에 이슬람 신자 학생, 기독교 신자 학생, 카톨릭 신자 학생, 힌두교 신자 학생, 불교 신자 학생 및 유교 신자 학생이 있으면 일반 대학교는 의무적으로 해당 각 종교를 가르치는 교수를 두고 학생들에게 해당 각 종교를 가르쳐야 하며, 학생은 해당 각 종교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슬람 대학교에서는 다른 종교는 가르치지 않고 이슬람 만 가르치며, 기독교 대학교에서는 기독교 만 가르치며, 카톨릭 대학교에서는 카톨릭만 가르치 만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비이슬람 신자가 이슬

람 대학교에 들어가면 부득이하게 이슬람을 공부해야 하며 이슬람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비기독교 신자가 기독교 대학교에 들어오면 부득이하게 기독교를 공부해야 하며 기독교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1.4. 인도네시아에 인문계 대학교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으나,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공대 특수 분야, 외국어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체육대학 등의 숫자는 인구에 비해 턱 없이 적고, 한의과대학(Oriental Medicine College)은 아예 제도 자체가 없다. 위에 열거한 분야에 많은 대학교 설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21.5. 교육의 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학교 설립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과 문화사업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분야이다. 뜻이 있는 분들의 인도네시아 대학 교육사업 진출을 권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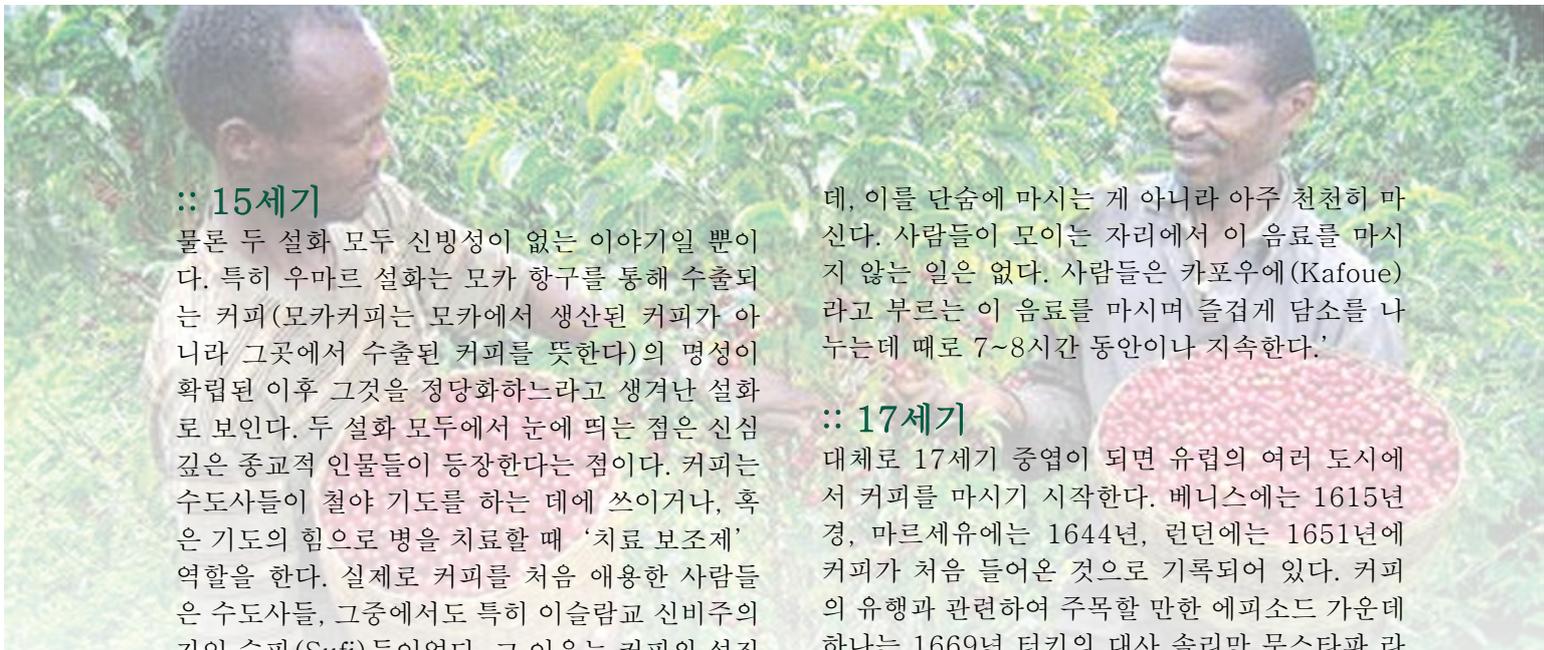


커피의 역사(1)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커피의 기원 설화는 에티오피아의 염소치기 칼디의 이야기 일 것이다. 어느 날부턴가 칼디가 기르는 염소들이 밤늦게까지 흥분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염소들이 어떤 나무 열매를 먹고 나면 것처럼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칼디는 직접 그 열매를 씹어보았다. 그러자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게 여긴 칼디는 근처의 수도원을 찾아가 원장에게 열매를 보이며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원장은 쓸데없는 일이라며 열매를 불속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열매가 구워지며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났다. 이 열매를 갈아 물에 녹인 것이 세계 최초의 커피가 되었다. 수도원장이 이 음료를 시험 삼아 마시자 정말로 한밤중까지 정신이 또렷한 채 잠이 안 왔다. 이때 수도원장의 머리를 스치는 훌륭한 생각이 있었으니, 밤에 철야기도를 하는 수도사들이 이 음료를 마시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과연 이 열매를 끓인 음료를 마시고부터는 수도사들이 꾸벅꾸벅 조는 일 없이 밤새 맑은 정신으로 정진할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의 염소치기 칼디와 그의 춤추는 염소들”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동양언어학자인 파우스투스 나이론이 1671년에 출판한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슬람권에서는 모카(예멘 남서 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의 성자 알리 이븐 우마르에 관한 설화가 유명하다. 우마르는 스승이 죽으면서 명한 대로 모카로 가서 여러 기적을 행했다. 예컨대 모카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흠을 한 줌 움켜쥐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는데 이것이 이 지역 최초의 우물이라고 한다. 얼마 후 이 지역에 역병이 크게

유행하자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우마르는 기도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렇게 병을 고친 사람 중에는 이 지방 영주의 딸도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우마르와 그 여인 사이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소문을 접한 영주는 격노하여 우마르를 추방했다. 우마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커피나무를 발견한 그들은 열매를 달여 마시며 지냈다. 그 후 모카에 또 역병이 돌았고, 사람들은 다시 우마르를 찾아왔다. 그런데 이때 우마르는 시커먼 액체를 마시고 있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마르는 이 액체에 잠잠(Zamzam) 성수(聖水)와 같은 영험한 힘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잠잠은 이슬람교 최대 성지인 메카의 카바 신전 옆에 있는 샘으로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황야에서 갈증으로 울부짖었을 때 알라가 물을 솟아나게 한 곳이다. 전 세계의 순례객들이 메카에 와서는 반드시 이 샘물을 마실 뿐 아니라 집에 병자가 있는 사람이면 이 물을 가져다가 먹여서 병을 낫게 한다. 그런데 우마르 성인이 권한 커피가 바로 이 성수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모두 병이 나았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영주는 깊이 뉘우치고 성자를 다시 모카로 모셔왔다.





:: 15세기

물론 두 설화 모두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특히 우마르 설화는 모카 항구를 통해 수출되는 커피(모카커피는 모카에서 생산된 커피가 아니라 그곳에서 수출된 커피를 뜻한다)의 명성이 확립된 이후 그것을 정당화하느라고 생겨난 설화로 보인다. 두 설화 모두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신심 깊은 종교적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커피는 수도사들이 철야 기도를 하는 데에 쓰이거나, 혹은 기도의 힘으로 병을 치료할 때 ‘치료 보조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커피를 처음 애용한 사람들은 수도사들, 그중에서도 특히 이슬람교 신비주의자인 수피(Sufi)들이었다. 그 이유는 커피의 성질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커피는 잠을 쫓고 식욕을 억제하며 정신을 흥분시킨다. 이렇게 보면 커피는 몸에 하등 좋을 게 없는 물질이다. 그런데 수도사들은 바로 이런 ‘나쁜 점’ 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극한 신앙심을 지닌 수도사들은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 세상의 욕심을 끊어 먹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심리적 흥분 속에 신을 맞이해야 한다.

원래 커피는 ‘한 잔의 여유’가 아니라 ‘불꽃튀는 종교적 긴장’의 음료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대개 그렇듯이 커피의 경우 역시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돌아갔다.

:: 16세기

처음에는 종교적인 의도로 마셨다고 해도, 일반 신도들이 따라 마시면서 커피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다. 메카의 신전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이 음료를 돌려가며 마시는 동안 사람들은 점차 그 향과 맛을 즐기게 되었다. 메카는 매년 전세계 이슬람 신도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15세기 말에 이곳에 모습을 드러낸 커피는 순례객들에 의해 이슬람 세계 전체로 퍼져갔다. 1510년에는 카이로에서 커피를 볼 수 있었고 1559년에는 이스탄불에도 보급되었다. 정작 메카에서는 이 음료가 이슬람 율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놓고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금지 물품이 되었다가 다시 해금되었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커피는 다마스쿠스, 알레포, 알제 등지로 퍼져갔다. 술이 금지된 이슬람 세계에서 커피는 ‘이슬람의 와인’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점차 뿌리를 내렸다. 유럽인들 중에 처음 커피를 경험한 것도 이슬람 국가를 방문한 여행자들이었다. 1615년에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렀던 피에트로 델라 발레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자. ‘터키인들은 색깔이 까만 음료를 마시는

데, 이를 단숨에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마신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음료를 마시지 않는 일은 없다. 사람들은 카포우에(Kafoue)라고 부르는 이 음료를 마시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데 때로 7~8시간 동안이나 지속한다.’

:: 17세기

대체로 17세기 중엽이 되면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다. 베니스에는 1615년경, 마르세유에는 1644년, 런던에는 1651년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커피의 유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는 1669년 터키의 대사 솔리만 무스타파 라카가 중요한 외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루이 14세를 만나러 프랑스에 온 사건일 것이다. 그는 루이 14세가 터키 황제의 친서를 받을 때 일어서지 않는다고 화를 낼 정도로 오만했고 결국 외교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가 파리 상류층 사람들에게 터키식으로 꾸민 방에서 흑인 노예들을 시켜 일본 자기에다 커피를 대접한 일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렇지만 커피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에는 기호품이라기보다는 우선 약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는 신상품이 도입될 때 흔히 있는 일인데, 대개 온갖 병을 낫게 하거나 정력을 강하게 해준다는 식의 소문이 돌게 마련이다. 후추·코코아·담배, 심지어 감자 같은 경우도 처음 소개될 때에는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1671년 리옹에서 출판된 ‘커피, 차, 코코아의 효용’이라는 책에는 커피의 약효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음료는 모든 차갑고 축축한 체액을 말리고 바람을 제거하며 간을 보하고 수종을 완화한다. 옴이나 피가 썩는 병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심장의 열을 내리게 하고 지나친 박동을 조절해 주며 복통을 완화하고 식욕 감퇴에도 좋다...커피에서 나는 김은 안질, 이명(耳鳴), 숨이 찰 때, 비장의 통증 그리고 기생충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과음 과식에 이 이상 좋은 것이 없다.’

한마디로 커피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는 약이라기보다는 향과 맛으로 즐기는 일반 음료로 자리잡아 갔고, 유럽 주요 도시들에는 카페들이 속속 등장했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는 1686년에 생제르맹 시장 근처에 세워진 카페 프로코프일 것이다. 뷔퐁, 디드로, 달랑베르, 루소, 볼테르, 돌바크 등 계몽주의 시대의 쟁쟁한 문인과 사상가들이 다 이곳 단골손님들이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 화제의 도서: 경영 전략과 리더십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김성근 저 | 이와우



“나는 선수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리고 싶었다.”

1969년 마산상고 감독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고양 원더스 감독까지 44년의 지도자 생활, 그동안 그의 손에 의해 길러진 수천 명의 제자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슈퍼스타들, 말은 죽죽 형편없는 팀들을 우승권에 근접한 외국인단의 팀으로 바꿔놓고, 60살이 넘은 나이에는 신생팀이나 다름없던 SK 와이번스를 맡은 첫해부터 우승팀으로 만들어버린 최고의 승부사, 동료 감독이자 야구계 최다 우승 감독이었던 김용룡 감독에게 ‘야구의 신’이라 불린 리더 김성근. 이렇게

화려한 이력의 그가 그간의 삶에서 배운 리더십, 그 실체는 무엇일까? 이 책은 그 43년간의 리더십을 정리한다.

이 책에서 그는 지옥훈련으로 대표되는 김성근식 조련법, 리더 자신이 스스로와의 싸움에서의 승리하는 자기 관리법, 선수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동기부여 방법 등 그를 성공한 리더로 이끌었던 생생한 방법들을 경험담과 에피소드들을 토대로 세세히 밝히고 있다. 리더로서 머리가 아닌 마음을 보여주는 그의 삶의 흔적들. 그 어떤 리더십 책에서도 건질 수 없는 값진 수확들이 가슴을 울린다.



쟁쟁: 동양 고전에서 배우는 이기는 기술 | 자오환
등 저/노만수 역 | 민음사

춘추 전국 시대 명재상 관중에서부터 청나라 번영의 기틀을 닦은 옹정제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사를 통해 배우는 설득, 협상, 논쟁의 기술. 사리의 옳고 그름을 밝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투고, 여럿이 서로 의논하고 상대를 깨우치기 위해 말하는 논변, 논쟁의 역사는 동양사만큼이나 유구하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청나라까지 중국 역사에서 빼어난 논변을 펼친 100여 명의 인물 이야기는 5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유효한 시사점을 준다.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신시아 A. 몽고메리 저/이현주 역 | 리더스북

매해 3주간, 총 3년 동안 진행되는 이 장기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은 수업에서 얻은 아이디어



와 전략을 자신의 경영현장에 직접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하거나 다시금 새로운 전략을 창출해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를 통해 리더들은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출하고 대응할 줄 아는 진짜 전략가로 성장하게 된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주

역의 원리로 운을 경영하는 법 | 김승호 저 | 쌤앤파커스

공자가 가축 끈이 세 번 끊어지도록 읽은 책이 바로 주역이다. 인간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보여주는 지혜의 보고로서, 주역을 읽으면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읽힌다.



다. 살다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기회가 우연히 찾아오기도 한다. 인생은 우연과 필연의 조합이다. 그리고 그 ‘우연’을 다루는 기술이 바로 운 경영이다. 저자는 주역이 말하는 운의 원리, 운을 경영하는 법에 대해 말한다.

* 테마 기획 : 삶의 기술

청춘, 거침없이 달려라

강남구 저 | 국일미디어

21세에 ‘티켓몬스터’ 최연소 팀장을 거쳐 22세에는 나스닥 상장 글로벌 기업 ‘그루폰’의 전 세계 49개국 중 최연소 임원을 지낸 23세 청년 강남구. 이 책은 세상이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스펙을 쌓



았지만 꿈을 잃은 청년들에게 전하는 ‘꿈이 스펙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2부에서는 도전하는 청년 10인의 이야기를 통해, 스펙을 좇다가 꿈을 잃어버린 청년, 현실과 타협하다 길을 잃어버린 청년에게 꿈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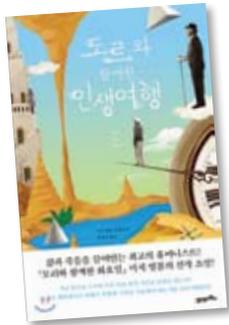
도르와 함께하는 인생여행

미치 앨범 저/윤정숙 역 | 21세기북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범의 신작 소설. 주인공 도르는 인류 최초로 시계를 고안한 날, 신의 천벌을 받게 된다.

유배에 처해진 그는 수세기 동안 동굴에 갇힌 채 만인의 간청, 시간을 더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들어야 하는 형벌에 처해진다. 신은 도르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나

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자살을 꿈꾸는 여고생과, 불치병에 걸려 영생을 꿈꾸는 백만장자. 두 사람에게 도르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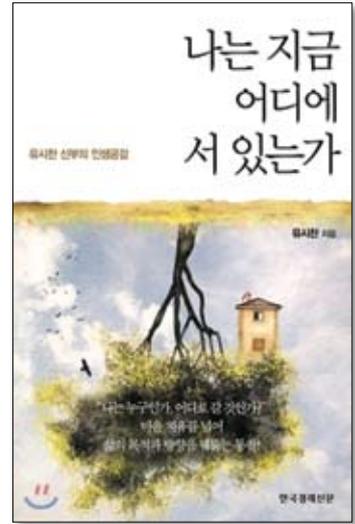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유시찬 신부의 인생공감 | 유시찬 저 | 한국경제신문사

경쟁사회에서 삶의 방향타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넘쳐나는 가벼운 힐링에 지친 사람들에게 ‘멘토를 넘어선 스승’ 유시찬 신부가 전하는 깊은 울림의 메시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향해 걸어가 있는 중년들까지, 과연 자신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는 게 급급해서 땅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하늘을 우러르며 꿈꾸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동분서주하다가는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야 할까?

이 책은 예수회 소속으로 서강대 이사장을 지내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청년토크’를 개최하여 ‘청년들과 소통하는 신부님’으로 자리매김한 유시찬 신부가 성직자로서 인생을 살면서 마음 깊이 느꼈던 점들, 또한 다양한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느꼈던 점들에 대해 써내려간 인생공감 잠언집이자 경쟁사회 속에 지쳐 삶의 방향타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언하는 마음공부 에세이다.



심리학 나 좀 구해줘 :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1

가지 심리 법칙 | 폴커 키츠, 마누엘 투쉬 공저/김희상 역 | 갤리온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을 돌며 강연을 진행하며 명성을 얻은 저자들은, 4년 동안 직접 면담, 혹은 이메일로 상담을 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같은 뻔한 조언이 아닌, 실험으로 증명된 심리 법칙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심리학의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 인도네시아 유서영
021-2902-1714(직통105) / 0821-2282-8352 /
berrius@yes24.co.id / www.yes24.co.id

<연재> 독도를 알자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외교통상부>

독도에 관한 일문 일답

Q3

1951년 샌프란치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1951년 샌프란치스코 강화조약은 제2조(a)에
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
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
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한국에 3000여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
고 있으며, 따라서 동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
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
습니다.

1943년 카이로 선언 및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SCAPIN) 제 677호 등에 나타난 연
합국들의 의사를 감안한다면, 동 조약에 따라 일
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샌프란치스코 강화조약의 관련부분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Q4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 주장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했나요?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에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주권 침탈은 1910년 완결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1904년 일본은 강압에 의해 체결한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 이미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에 한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금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한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Q5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어떻게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주재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종 법령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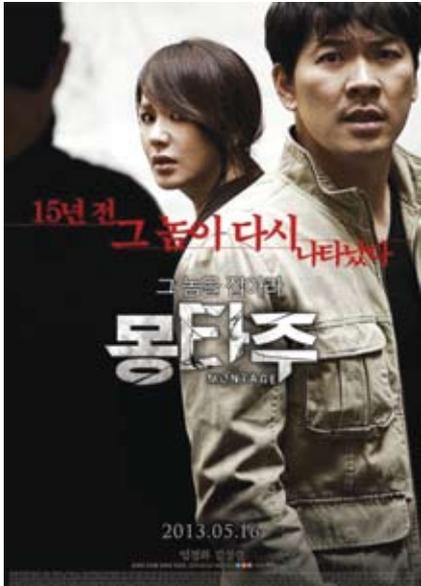
넷째, 등대 등 여러가지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5월의 영화 추천작



15년 전, 한 유괴범이 종적을 감춘다. 범인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5일 전, 사건현장에 꽃 한 송이를 갖다 놓는다. 그로부터 며칠 후 15년 전 사건과 동일한 범죄가 되풀이 되고...

눈 앞에서 손녀를 잃어버린 할아버지
15년 전 범인을 찾아 헤맨 엄마
15년간 미제사건에 인생을 건 형사

엄정화, 김상경 연기파배우의
휴먼 스릴러 <몽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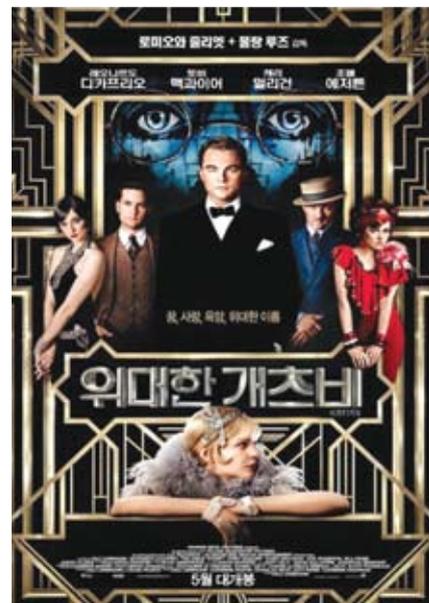
유년시절,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은 연쇄살인범 유홍준의 몽타주를 의뢰 받고 그의 몽타주를 그리게 된다. 결국 서정민의 몽타주에 의해 연쇄살인범 유홍준은 검거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고 몽타주의 존재를 알게 된 유홍준은 서정민에게 관심을 보이며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한다.



바즈 루어만의 <위대한 개츠비>
66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



전 세대를 감동시킨 위대한 고전!
타임지 선정, 20세기 미국 문학 최고의 걸작! 스크린에 화려하게 부활한 영원한 베스트셀러!
전 세대를 감동시킨 위대한 남자 개츠비의 꿈, 사랑, 욕망을 그린 드라마.



도덕이 해이해지고, 재즈가 유행하고, 불법이 난무하며, 주가는 끝없이 치솟았던 1922년 뉴욕.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부자들의 세상에서 펼쳐지는 사랑의 환상과 배신, 그리고 타락해버린 꿈. 1920년대 풍요와 혼란의 “재즈시대”를 그려내는 영화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전

문의 573-1576

 **KMAQA**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땀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널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0 5979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다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1-3951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Sudirman)	9127 2262
가효(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뽕독인다)	315 1033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	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	-----------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	-----------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뱅크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본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 143437
 쉼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에총(회장 한상재)0811188612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pearl@hanmail.net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차문화원(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한상재)	(0811 188 612)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5 9717 450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KORINDO Pl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책임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칼리만탄 Passi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